



보스톤 권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아시안 주택 구입시 차별 줄어든다

샌서스, 분기별 주택소유조사 아시안 카테고리 신설
각종 정부주택 정책에서 아시안에 대한 고려 늘 듯
그동안 조건 같은 타인종에 비해 모기지 거부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택 구입시 소수 아시아태평양계란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의 장막이 한 꺼풀 벗겨질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시아들은 센서스 분기별 조사보고서 주택소유주란에서 <기타>로 표기해 각종 주택정책에서 외면을 당해왔지만 올 7월 보고서 부터는 아시아태평양(API) 별도의 카테고리 가 새롭게 마련된다.

독립된 아시아태평양양계가 아닌 <기타 (Other)>로 분류된 아시아인들은 지금까지 미디어와 학계, 정계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사용된 자료는 미 센서스국의 분기별 주택소유 현황 통계였기 때문에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아시아인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계들은 모든 조건이 동등할 때 주택 모기지론 신청시 다른 어떤 인종그룹보다 거부비율이 높다. 실제로 주택 구입 현장에서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미아시아안부동산협회 (Asian Real Estate Association of America)는 아시아인이 결코 기타가 아니라는 〈노아더(No Other)〉 캠페인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 2면으로 계속



트럼프 "한국 미군 주둔비 100%부담해야"

CNN 인터뷰,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
싫으면 스스로 방어하라

(서울=뉴시스) 국종환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로 거의 확정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CNN앵커 울프 블리처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 5면으로 계속

이전법
상법
만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y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523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sang.com



5월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190

싱가폴항공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틸리티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

\$1190은 싱가포르항공 금액이며, 미국 국내선 연결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항공편이며, 최소 출발 7일 전에 구매하셔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의 사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할인항공권 전문

IACE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책 · 콘도 · 비지니스 · 빌딩 ·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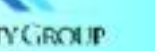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송동호 宋東浩

이민법, 지적재산법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BOSTON OFFICE | Tel: 617-489-1527
 185 Concord Ave., Ste. 602, Belmont, MA 02458

이용화 박사 고혈압 특별 건강세미나

보스톤 새생활센터에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톤햄 소재 센터 (4 Spring St, Stoneham, MA02180)에서 고혈압에 대한 특별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건강세미나 1부에서는 내과의 이용화 박사가 고혈압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특별 강연을 갖는다. 2부에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 체조, 운동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3부에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강 요리 전시 및 시식회가 진행된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고혈압 증상을 느끼거나, 자신이 고혈압인지 알고자 하는 모든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 대상이다. 세미나 후에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한인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 한하여 오렌지 라인 오크그로브(Oak Grove) 역에서 무료셔틀을 제공할 수 있다. 보스톤새생활센터는 지난 20여년간 무료진료, 독감백신 접종 등 보스톤 한인들의 건강증진을



내과의 이용화 박사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 세미나 시간 : 5월 21일 오후 2시 ~ 5시

주최 및 안내 : 보스톤 새생활 센터/
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샌서스, 아시안 더이상 기타로 분류안해

▶▶1면에 이어서

이번 샌서스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마이크 혼다의원은 “아시안 주민들의 20 퍼센트는 주택을 찾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 지적하고 “미 샌서스국이 앞으로 새롭게 발표할 데이터는 동료의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올바른 상황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계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것” 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계 주택 소유자 데이터는 1년에 한번씩만 집계됐다. 미샌서스 당국은 전미 아시아부동산협회(AREAA)의 요구를 수용해 각 분기별 보고서에 아시아태평양계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더 이상 기타로 취급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전미아시아부동산협회 빅키 실바노(Vicky Silvano) 회장은 “이 분기별 보고서들은 더 많은 아시아태평양계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들과 사업체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 아시아부동산협회(AREAA)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기대를 나타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REAA의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계들은 5년간 2백만개의 주택자금융자를 대출했으며 이것을 모기지 원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6천억불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 미 아 시 안 부 동 산 협 회

(AREAA)는 2003년 설립되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고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사업창출의 기회를 만들고자 설립된 단체다. 1만5천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매일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사추세츠 유학생 수 소폭 감소

미국내 유학생 수 지난해 3월 대비 7.8% 감소
중국, 베트남 큰 폭 증가 한국, 일본 꾸준히 감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세벽 기자 = 매사추세츠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미국내 전체 한인 유학생 수도 지난해 3월 대비 7.8% 줄어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 반대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3월보다 4.83% 증가한 1,542,199명으로 늘었다. 미이민세관단속국(USICE)이 4월 29일 발표한 2016년 3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3월보다 7.8%감소한 총 78,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난해 말 4,129명이던 유학생 수가 3월 말 3,954명으로 175명 감소했다. 한인 유학생 수는 2015년 한해 동안 7% 줄었으나 지난 연말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은 2010년으로 10만1,248명이었다. 이후 유학바람은 뚜렷한 퇴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비 약 5년 만에 23%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인 유학생은

소폭 상승했으나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한인 유학생 감소세의 견인차는 조기유학생의 급격한 감소다. 지난해 11월 SEVP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이 7%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은 14%나 감소했었다. 한 조기유학 관계자는 매사추세츠 인근 주요 사립대학에서 한인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는 한인 학생이 없는 사립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학생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려워진 한국의 경제상황과 조기유학에 대한 회의가 상당수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유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유학 일변도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때 미 전국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수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중국인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중국인 유학생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대비 7.9% 증가한 353,069명을 기록했다. 현재 유학생 순위에서 한국은 2위 자리도 인도에 내주고 현재는 3위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 증가한 23,137명의 유학생들 미국에 보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미국유학생이 11.1% 폭증해 29,101명에 달했다. 반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4.2%가 줄어 총 24,452명에 불과했다. 매사추세츠 주내 중국인 유학생수는 2016년 3월 22,274명이었으며 일본인 유학생은 총 1,364 명이였다. hsb@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한인변호사회 정기모임 가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정기 모임을 4월 28일 캠브리지 소재 코리아나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성기주, 장우석 변호사를 비롯해 레오나드 김, 박용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사회 모임에서 한인 변호사들은 보스턴지역 5개대학 유학생들과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5월 14일 뉴햄프셔 한인회 주최 법률세미나에 변호사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한인변호사회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

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계 변호사들의 모임처럼, 한국계 변호사들의 활발한 모임을 만들고 차후 아시아 계 변호사들의 모임을 만든다는 것이 장래 계획이다. 한인변호사회는 7월 정기모임을 베벌리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야외회를 갖기로 했다. 한인변호사회는 새로운 또는 기존의 한인변호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koreanlawyers.us@gmail.com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교회 NAICFM Boston 모금 만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국제 선교회는 5월 14일 오후 6시 헤이버힐 소재 디부로스(DiBurro's)에서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국제선교회는 이번 만찬에서 거두어지는 모금은 “소외되고 불우한 여성들의 재활센터와 고국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 소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여질 것” 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특히 2016년에는 국제결혼가정 2세들과 한인가정 자녀들이 합심하여 사회봉사에 이바지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기에 전심을 다할것” 이라는 게 국제선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만찬의 입장료는 \$60이며 티켓 또는 만찬 관련 질문은 이은주 회장(978-394-9211)에게 하면된다.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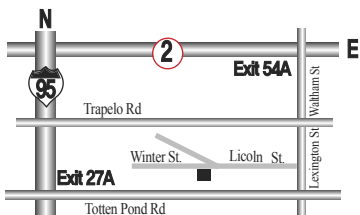
July 11th - July 2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슈스케 보스톤 예선전 18일 버클리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6 슈퍼스타 K 보스톤 예선전이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올스톤 소재 버클리 음대 연습실에서 열린다.

슈퍼스타 K 보스톤오디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엠넷을 친구 추가한 후 지원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오디션 동영상상을 보내면 지원이 완료된다. 또한 엠넷 홈페이지(<http://superstark.mnet.interest.me/applicant>)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원시 접수 시 장소 선택을 '보스톤 버클리 음대'로 하면 된다. 접수는 18일 당일 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접수 없이

도 현장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당일 현장에는 키보드만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악기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지원자는 참가지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해외 예선을 통과한 합격자에게는 본선 진출을 위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제공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5억원의 상금과 시상식 MAMA에서의 데뷔 무대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18일 화요일

장소: 버클리 음대 연습실 (25 Fordham Rd, Allston, MA 02134)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 심판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매사추세츠주태권도협회는 4월 30일 토요일 우스터에 위치한 유에스테권도센터에서 심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각 도장에 소속된 심판진들이 모여 품새와 스팅에 관한 룰 설명과 스팅에 사용될 KP&P 전자 채점 시스템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 받은 심판진은 다가오는 5월 15일 매사추세츠주 협회장 및 보스톤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사추세츠주태권도 협회는 15일 우스터 인근 그래프턴 소재 Grafton High school에서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회를 개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 심판 세미나 개최후 단체 사진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명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1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1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가정愛 달 사랑이벤트

행사기간
5월 1일 ~ 5월 15일까지

프로모션 기간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매장에
모실 수 없는 경우 매장에 전화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vent 1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FREE
50g Extract

(\$46 상당)

10% OFF

동인비
전제품

6년근 홍삼과 고급 녹차가 만났다!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120g 무료증정

Event 2

10% OFF

홍삼분 / 추출액 / 지너제품 구입시 10%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FedEx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통일안보 비전대회 신청자 몰린다

상금규모 4천 5백만원, 참가만 하면 상금, 한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 숙박 제공 특전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평통이 주관하고 국방부가 주최한 통일안보 비전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가팀이 늘고 있다.

총 상금규모가 4천5백만원이데다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 숙박비까지 제공하는 입상 상금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평통보스톤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지역예선에 참가만 해도 \$200의 참가상이 주어진다.

평통과 국방부는 전략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보스톤을 예선전을 갖는 도시로 선정했다. 한선우 평통회장은 3일 렉싱턴 소재 다빈식당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보스톤 지역은 한인 인구가 많은 애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등을 제치고 LA, 워싱턴, 뉴욕과 함께 예선전을 벌이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미국의 대표적 교육기관과 지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보스톤에서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1등 팀은 서울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선우 회장은 “1등이 선발되면 본선 진출까지 전문가가 이 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참가팀이 현재 9팀인 가운데 평통보



(좌로부터)조진행 차세대분과 위원장, 한선우 회장, 장수인 부회장, 김현주 부간사

스톤지역협의회는 참가 마감일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일단 참가를 원하는 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한인들에게 통일과 안보의 비전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게끔하는 목표도 있다.

평통 장수인 부회장은 “올해의 경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공지가 돼서 좀더 기회를 주기 위해 연장했다. 주제의 제한은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통일, 안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이번 보스톤 지역 통일안보비전대회의 공동진행을 맡고 있는 조진행 평통위원은 “특히 전후 세대,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의 통일, 안보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들어보는 기회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김현주 부간사는 “한사람이라도 통일안보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청소년들의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2-5명으로 편성해서 프레젠테이션, 토론, 뮤지컬, 콩트, 연극, 댄스 등 모든 종류의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면 된다. 대회는 오는 6월 4일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평통 윤미자(mijayun@hotmail.com), 조진행(conta-ct.bostonnuac@gmail.com) 위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트럼프 방위비 부담 100%라 처음 주장

▶▶1면에 이어서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왜 100% 부담은 안되는 것이냐"고 트럼프는 반문했다.

이에 블리처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묻자 트럼프는 "당연하다.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해왔지만 100%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무기를 지원하고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들도 우리를 도와야 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몇배나 많은 군사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미치광이(maniac)'로 칭하며 한국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과 미군 없이 싸우지 않으려면 방어비 협상에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jhkuk@new1.kr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이번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는 6개교 3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수상했다

글짓기 나의 꿈 말하기 대회 8개교 참여 성황

재미한국학교(NAKS-NE)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주최 한국학교에서 배운 글솜씨, 2세들 36명 수상받아 심사기준 강화 일부학년 수상자 없거나 적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NAKS-NE)는 7일 토요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턴 한국학교에서 2016년도 글짓기 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6개교 36명의 학생들을 선발, 수상했다.

이 날 행사에는 그린랜드한국학교, 밀알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보스턴장로교한국학교, 보스턴한국학교, 보스턴천주교한국학교, 북부보스턴한국학교, 퀴지한국학교 등 8개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지역 단체장, 내외 귀빈 등을 합해 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글짓기 대회는 각 부문 별로 프리킨더(PK)에서 9학년까지 11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당일 감독교사에 의해 추천된 2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였다. 각 학교와 외부에서 추천된 심사위원들이 세부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된 심사표에 의해 채점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대회는 진행되었다.

보스턴 영사관 엄성준 총영사가 수여하는 전체 대상은 보스턴 천주교 학교 9학년 김유지 학생이 수상했다. 김유지 학생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9학년 대상을 수상한 퀴지한국학교에 김동영 학생도 어렸을 때 떨어져 지내 몰랐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자신의 글로 표현하여 많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날 글짓기 대회에는 후원 단체장인 엄성준 주보스턴총영사, 조은경 뉴햄프셔한인회 회장, 조봉섭RI한인회 회장, 신영옥 메인한인회 회장, 김경원 보스턴한인회 회장, 한선우 민주평통보스턴협의회 회장,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유영심 한미노인회 회장, 이은주 국제선교회 회장, 안병학 세계무역협회보스턴지회 회장, 한윤영 중앙대동문회 고문, 서민원 한양대 동문회 회장, 한순용 NAKS-NE협의회 회장이 시상식에 참석해 각 학년별 수상자들에게 상장,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재미한인학교NE협의회는 이번 대회부터 60점 이하 득점 학생은 수상에서 제외하고 80점 이하 득점 학생은 대상 및 총영사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프리킨더와 킨더는 아예 수상자가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학년	상	상 이름	대상자	학교
	전체 대상	총영사상(엄성준 총영사)	김유지	천주교
Pre-Kinder	대상 1등 2등 3등	뉴햄프셔한인회상(조은경 회장)	- - -	- - -
Kinder	대상 1등 2등 3등	보스턴한인회상(김경원 회장)	- - -	- - -
1학년	대상 1등 2등 3등	로드아일랜드한인회상(조봉섭 회장)	박예준 박하림 권민준 이하연 이혜원	밀알 천주교 천주교 북부보스턴 보스턴한국학교
2학년	대상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메인한인회상(신영옥 교장)	이지환 박하림 성혜나 서대영 백종윤 유하은 장호경	천주교 밀알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 북부보스턴 보스턴장로교
3학년	대상 1등 2등 3등	국제선교회상(이은주 회장)	김서연 안예지 황진희	로드아일랜드 북부보스턴 그린랜드 그린랜드
4학년	대상 1등 2등 3등	한미노인회상(유영심 회장)	- 김유민 이윤찬 박민주	- 천주교 보스턴한국학교 그린랜드
5학년	대상 1등 2등 3등	민주평통보스턴지회(한선우 회장)	한동진 - - -	보스턴 천주교 - - -
6학년	대상 1등 2등 3등 4등 5등	한양대동문회상(서민원 회장)	- 박정원 - - -	- 밀알 - - -
7학년	대상 1등 2등 3등	중앙대동문회상(한윤영 고문)	김하리 임수진 김지우	북부보스턴 천주교 밀알
8학년	대상 1등 2등 3등	시민협회상(이경해 회장)	- 이윤재 -	- 북부보스턴 -
9학년	대상 1등 2등 3등	무역협회보스턴지회상(안병학 회장)	김동영 김유영 최예빈 박정민 이윤지	퀴지 퀴지 천주교 밀알 밀알

없고 일부 학년은 수상자가 소수이거나 대상이 빠진 학년도 있었다.

한편 김희진 교육간사가 사회를 맡은 2016년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북부보스턴한국학교의 7학년 김하리 학생이 보스턴 총영사가 수여하는 대상을 받았다. 천주교한국학교 9학년 김유지, 밀알한국학교 11학년 김채연 학생은 한순용 재미한국학교 회장이 수여하는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심사는 이경해 시민협회장, 이현희과기협회장, 한선

우 평통회장, 조봉섭, 이재영 로드아일랜드한인회장 및 사무총장, 서민원 한양대동문회장이 맡았다. 제비뽑기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발표한 학생들 모두가 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말이었다.

글짓기대회를 마친 후 모두 함께하는 간식시간을 가졌다. 다음 협의회 행사는 5월 28일 Cochituate State Park에서 2016년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굶주린 이웃을 위해 함께 걸었다

워크 포 헝거 행사에 3만 5천여명 참가
메사추세츠 내 25만가구가 기아상태로 알려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걸어서 완주하는 성취감과 기부 경험 나누는 워크 포 헝거(Walk for Hunger) 행사가 1일 열렸다.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에는 올해도 3만 5천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올해의 걷기 구간은 보스톤 커먼에서 출발해 캠브리지와 워터타운, 울스톤을 거쳐 보스톤 커먼으로 돌아오는 총 10마일의 거리였다. 기부금 모금 활동은 참가자들의 10마일 걷기 완주를 담보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소정의 금액의 기부금을 모아 행사 주최측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부에 상관없이 걷기 행사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으며 친구, 애인, 기업, 학교, 단체등도 참여하는 것이 이 행사의 특색이다.

메사추세츠 주 안의 기아문제를 해

결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밝힌 단체 참가자 니콜라스 스튜어트(노던 에식스 커뮤니티 컬리지·20)씨는 학내에서 동아리(Community Outreach Group)를 통해 “워크 포 헝거” 행사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COG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걷는 것처럼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며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가족참가자 말콤 월시(6) 군은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다”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월시 군의 어머니 메리 월시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전 구간을 자신의 힘으로 걸었다.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 불평없이 열심히 해 준 아이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기쁜 마음

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프로젝트 브레드의 엘렌 파커 이사는 라디오 방송 WBZ를 통해 “아직 정확한 펀드레이징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백만달러의 모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 포 헝거 행사로 모아진 금액은 메사추세츠 내의 지역별 식료품 구호 시설, 커뮤니티 기반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어린 아동과 학교 급식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메사추세츠 지역 내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일 방송된 NBC 뉴스는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25만가구가 안정적으로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빈곤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좌)아들 말콤(6) 군과 다른 딸들과 함께 참가한 메리 월시 씨는 불평없이 완주해 준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우)이날 행사에는 학생들과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밀알한국학교에서는 재미한국학교 글짓기 대회에서도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밀알한국학교, 교내 글짓기발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첼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지난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내 글짓기 발표회를 가졌다. 학부모와 밀알한인교회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교생이 차례차례 자신의 글을 발표하며 실력을 뽐냈다.

학생들은 주로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한 주제의 글을 많이 발표했다. 한국학교를 ‘드라마’에 비유한 이유지 학생은 한국학교를 다니면 재미있어서 시작하면 계속 오고 싶어서고, 어른들만이 쓰는 어려운 한국말도 많이 배울 수 있다며 드라마 같다고 발표했다.

‘김치’에 비유한 박정민 학생은 한국인에게 김치가 중요하듯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학교는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재료가 다 어우러져 김치의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한국학교에서도 선생님, 학생, 책 등의 모든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표현하여 박수를 받았다. 부모님이 미국인인 박현희 학생은 서투른 발음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나라 한국의 말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현주교장은 “1회 때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학생들이 모두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2회부터는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고 전체 학생들에게 똑같이 상을 준다”고 밝혔다. 김교장은 또 “글짓기와 말하기 대회를 합친 성격의 이 행사를 통하여 글짓기 실력 향상은 물론, 발표에도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를 지켜본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시며 뿌듯해 하셨고, 그 중 몇 학부모님은 “아이들의 생각이 참 깊고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다”라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밀알한국학교는 4월 30일에 열린 NAKS-NE 글짓기 및 말하기대회에서도 모두 9명의 학생이 참가해 1학년 박예준 학생이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등상, 2등상, 3등상을 참가자 전원이 골고루 수상하였다. 말하기대회에는 김채연 학생이 참가하여 “행복 찾아 주기”라는 제목으로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밀알한국학교는 봄학기를 6월 19일에 마치고 여름방학 후, 9월에 다시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등록에 관한 문의는 김현주교장 (678-516-4974, hkimpw@yahoo.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2016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 -1

[총영사상]

사랑하는 가족에게

천주교 한국학교
9학년

김유지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나” 4학년인 제 동생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인 동생에게는 무조건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귀여운 동생, 사랑스런 엄마, 자상하신 아빠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제가 4살 때 아빠가 MIT에서 직업을 잡아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혼자서 보스턴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엄마와 함께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2년 후,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MA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사를 2번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크게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으로 오기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제 사촌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 사촌은 저와 동갑이고, 우리는 같은 빌딩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층, 우리가족은 1층, 사촌과 고모, 그리고 고모부는 3층. 우리는 유치원도 함께 다니고, 함께 놀고,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제 사촌은 정말로 단짝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어렸어도, 제 친구, 그리고 제 사촌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더 커서 돌아보니, 저의 슬픔과 아쉬움은 제 부모님의 아쉬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구, 집, 동

네, 아는 것을 모두 놓고 온 제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1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2-3년씩마다 갑니다. 어렵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는 지 저는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사촌들을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너무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촌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아쉬웠지만, 한국으로 가서 얼굴을 보면, 어렸을 때처럼 단짝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구 반대쪽에 있다는 일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생일날 때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끔씩은 제 사촌을 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우리 한국 또 언제 가요? 우리 빨리 가요.” 라고 조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기분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꼭 자주 봐야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랑과 행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족이 되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너는 언제까지나 내 단짝 친구일거야. 사랑하고, 한국에서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사랑해.

[1학년 대상] 내가 크면 되고 싶은 사람



밀알한국학교 박예준

내가 크면 되고 싶은 사람은 나에 아빠예요. 왜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왜 목사님이 대고 십이면, 목사님들은 나쁜 것 안 하고 착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은이까. 글언대, 나쁜 목사님이 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목사님이 대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쁜을 싫어해요. 그랬어 나에 아빠처럼 목사님이 대고 싶어요. 글언대, 더 잊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나에 아빠처럼 목사님이 대고 싶어요!

[2학년 대상] 좋아하는 한국음식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 이지환

~ 맛있겠다. 저는 소갈비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갈비 집에 가서 소갈비를 먹어요. 음~ 갈비는 안 짜고, 따뜻하게 맛있어요. 저는 갈비를 먹을 때 배 속에 “더! 더 줘! 더 줘!” 하는 것 같아요. 갈비를 “찌!” 갈비 뜯어 먹어요. 저는 라면도 많이 좋아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너구리 라면이 제일 좋아해요. 뽕뽕한 면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갈비와 너구리 라면을 많이 못 먹어요. 아쉬

워요. 그런데 한국 가면 소갈비를 많이 먹어요! 맛있겠다~!! 너구리 라면이 아빠도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엄마는 뽕뽕한 면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라면은 포기 않아요!!! 누구나 소갈비와 라면을 좋아해요. 갈비가 너무 맛있으니까, 빼에 남은 것도 다 먹어요. 다시 한번, 소갈비와 너구리 라면! 최고!!!

[3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동물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김서연

나는 매나티들을 좋아해요. 매나티들은 아주 커요. 그리고 갈색이에요. 매나티들은 물 안에 살아요. 그리고 식물만 먹어요. 매나티는 귀여운 얼굴이 있어요. 나는 매나티 사진을 첫번째로 봤을 때, 바로 매나티랑 사랑에 빠졌어요. 매나티들은 신기한 동물들이에요. 매나티들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매나티가 죽을 수 있는지 알아요? 아주 이상해요. 외나하면 매나티들의 살이 두꺼워요. 그리고 매나티들의 별명은 바다소이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매나티들은 커도 위험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누구를 다치게 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나티들이 많이 죽고 있는지 알아요?

매나티들은 배랑 부디쳐서 제일 많이 죽어요. 매나티들이 빨리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 주려고 해도요. 나는 이게 아주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물들이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이 매나티를 죽일까요? 그래서 나는 매나티들을 도와주는 크립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Annie라는 매나티의 사진을 받았어요.

내 생각은 이것이에요. 매나티들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나티들을 아프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매나티가 없는 세상은 속삭일 세상일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사랑스러운 동물을 살려야 되요.

▶▶9면으로 계속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변 매대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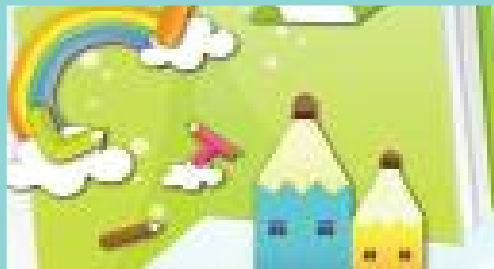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8면에 이어서

2016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5학년 대상] 봄

북부보스턴한국학교 **한동진**



봄은 생명으로 가득하기에 유명한 계절이다. 주로 봄은 생명의 계절, 여름은 햇볕의 계절, 가을은 아름다운 색깔들의 계절, 그리고 겨울은 새하얀 차가움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봄이 이런 “생명”을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 중 하나는 봄이 겨울 뒤에 있기 때문일 거다. 사실 생명은 사람의 주위에 흔해서 별로 “느낌”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겨울이 오고 거의 모든 사람한테 생물이 따뜻한 곳으로 움직이자 주위에 생명이 없는 게 사람들에게 갑자기 느껴지기 때문이다. 길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태어나자, 추위 때문에 갇혀 있던 생명체가 다시 따뜻함을 즐기러 다시 오고, 집을 짓며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진 “생명”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자, 생명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 생명의 느낌 때문에 인간들은 봄을 “생명의 계절”이라고 부르게 된다. 죽어 있고 보이고 나뭇잎이 없던 나무가 봄을 만나고 다시 아름다운 녹색 나뭇잎과 꽃, 열매를 핀다는 것, 죽어있던 땅이 다시 녹색 식물들을 탄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부쉬져 있는 동물과 새의 집이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이 평가를 도왔을 것이다.

봄이 “생명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유는

봄은 탄생의 “의미”를 보여준다. 나뭇잎이 나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대신 겨울을 차가움에서 천천히 회복하면서 나무의 잎이 천천히 다시 나무에 자라는 것, 꽃이 땅에서 천천히 올라와서 천천히 예쁜 잎을 펼치는 광경, 이런 봄의 이벤트들이 인간들에게는 “탄생”의 의미를 뜻해준다.

그리고 봄은 생명을 “balance”을 보여준다. 봄에서는 여름처럼 사람들이 식물에게 물을 주는 광경보다 비가 자연에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광경이 더 흔하다. 인간들 없이 식물들이 죽지 않는 광경, 인간들 없이 자연이 아름다움과 힘을 얻게 되는 광경, 이 광경이 자연을 “balance”을 갖게 의미한다.

이런 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겨울 뒤에 식물과 동물에게 잠시 회복할 시간, 봄이 없으면 세상은 어떨까? 회복할 시간이 없고 바로 뜨겁고 물이 흐르지 않는 여름으로 가면 자연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봄이 없어지고 겨울이 더 길어지게 되면, 생명들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생각없이 보내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봄은 자연과 생명의 선물이다.

[7학년 대상]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북부보스턴한국학교 **김하리**



저는 몇 년 전, 왼쪽 발을 세 군데나 다쳐서 일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피겨스케이팅도 그만두어야 했고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뛰어 놀지 못해 우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슬펐는지 저는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간절히 소원이 있었습니 다. 타임머신을 타 내가 안 다치게 만들고 싶다고요, 하지

만 이제는 타임머신을 아예 타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경험을 인하여 배운 것, 느낀 것, 그리고 좋게 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먼저 저는 아픔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을 부스지 않았다면 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잘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발을 다치는 게 이렇게 아픈데 전쟁에서 다리까지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겠어?’ 같은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저는 공부와 미술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미술을 죽을 것처럼 연습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마음껏 뛰어다닐 때 저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큰 상들을 따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경험 덕분에 저는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UN 사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렇게 되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 경험에는 나쁜 일도 많았는데 그 결로 인해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나쁜 일은 꼭 나쁜지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야! 타임머신 한번 타 볼래?”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습니다.

[9학년 대상] 사랑하는 가족에게

퀸지한국학교 **김동영**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의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뭔가 의미심장한 단어가 되었다. 유년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철없었던 그때의 나는 친할머니와 아버지의 손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머니에 대해 여쭙봐도 돌아오는 건 그저 텅 빈 공기소리 뿐, 그 누구도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부모님 참관 수업 일이나 체육대회 때 내 빈 옆자리를 매꿔주셨던 건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고모였고, 녹내장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시지 않았지만 항상 어린 나와 동생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다. 사실 아버지는 항상 일에 바빠 늦은 밤에 들어오셨기에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은 집에서 아버지의 등을 뚫거나 근처 공원에 놀러가 돼치바를 먹었던 기억 뿐이다. 유년시절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의 사랑이 절실했지만, 그 사랑을 대신 채워 주신 나의 할머니. 반찬투정을 하거나 괜한 이유없는 성질을 부릴 때도 항상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나의 할머니... 작은 몸집이었지만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신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내게 있어서 할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는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할머니께 드릴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싶었을 시기에 주지

못하셨던 사랑이 조금 많이 아쉬울 뿐이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 갈 때쯤 나의 눈앞에 모습을 들어내셨다. 갑자기 나타나신 어머니, 그리고 나의 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 모습. 그 동안의 서러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어머니가 미워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 나의 눈가도 붉게 변하며 눈에서 떨어지는 나의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리워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안 어머니는 미국에서 나와 내 동생을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뒤 우리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 때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 무엇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하지만 결국 어른들의 강요 때문에 나는 현재 미국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님과 같이 지내고 있고, 어머니 없이 외로이 보내던 나의 어린 시절, 시간이 약이라고 쳐도 그 외로움은 절대 못 고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해주던 나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절을 버릴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가족 따위는 없다. 나는 나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가족”이란 단어가 지금의 나에게 더욱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아마도 나에게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어깨 통증, 근육통, 관절염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위장, 소화불량, 장염
- ④ 만성 안과질환, 비전 장애
- ⑤ 소화장애, 변비, 폐렴, 대장염, 위장
- ⑥ 골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 ⑦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⑧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⑨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⑩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렉싱턴 학생들 학업 성적 월등히 높아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 우수
MA주의 다른 학군들도 시험 성적이 높은 경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소득 수준이 높은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학업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렉싱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미국의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하여 월등한 학업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출판되어 뉴욕 타임즈 블로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렉싱턴에 거주하는 6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미국 평균보다 3.8 단계가 높았다. 학업 성과로 따지면 렉싱턴 학군이 최고 등급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군보다도 0.3 단계가 높다.

뉴욕 타임즈 블로그에 게재된 그래프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와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대한 경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렉싱턴 외에도 벨몬트, 브루클라인, 박스보로, 콩코드, 뉴튼, 서드버리,

윈체스터, 웨스턴 등 매사추세츠 주에서 부유한 학군으로 꼽히는 지역들이 학업 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군들은 모두 미국 평균보다 3단계 이상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이고 있다.

스탠포드 논문의 저자인 셀 레어던은 “가난한 학군이건 중간 수준, 혹은 부유한 학군이건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학군들은 비슷한 수준의 미국 내 다른 학군보다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렉싱턴 학군은 학생 1명당 17,496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렉싱턴은 가구별 소득 중간값이 연간 16만 3천 달러로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매리 카즈코스키 렉싱턴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부모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부모의 관심뿐만 아니라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렉싱턴은 학생 1명당 17,496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 평균인 10,700 달러보다 64% 이상 많은 금액을 사용 중이다.

jsi@bostonkorea.com



스포츠 오소리티 463개 전매장 문 닫을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극심한 자금난으로 지난 3월에 파산 신청을 한 스포츠 용품 전문 회사 스포츠 오소리티 (Sports Authority)의 미국 내 463개 매장이 모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오소리티는 최초로 파산 신청을 할 때 140개의 점포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스포츠 오소리티가 발표한 폐쇄 예정 점포에는 매사추세츠 주의 매장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오소리티의 로버트 킬먼 변호사는 지난 3일 파산 법정에서 “채권자들이 구조

조정 방안을 인정하지 않고 자산을 모두 매각하길 원한다”며 회사의 모든 자산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스포츠 오소리티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오소리티의 경영진은 회사를 인수할 바이어를 찾고 있고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을 지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스포츠 오소리티는 현재 11억 달러의 채무를 안고 있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Reading JEI Math
JEI Science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어른 Java 강좌 일정

Weekdays, 7pm-9pm (수요일 제외)
초급반 Jr. High High 279.25 - 279.50
중급반 JUP-emp. for High School 279.25 - 279.50
문의: 781.290.0623

JEI Learning Centers
jell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290.0623
EMAIL: burlington@jell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주택.펀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ealty.com
Son2223@gmail.com
Bostonnewstarealty.com

10일간의 문화축제: 아트위크 보스턴 (ArtWeekBoston)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길거리와 장터로 예술이 찾아온다. 일상에서 가까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아트위크 보스턴이 시작됐다. 캠브리지에 있는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투어에 참여해 설명을 듣거나 보스턴 퍼블릭 마켓에 가서 장을 보다가 정물화를 그려볼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예술가가 진행하는 아트클래스에 참여하거나 갤러리 토크를 방문할 수도 있다. 곳곳에서 열리는 팝업 오페라나 연주회를 보는 것도 가능한다.

일 년에 두 차례, 10일 동안 열리는 아트위크 보스턴은 보스턴의 예술과 문화, 지역사회의 특성과 다양성을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험으로 제공하는 문화축제다. 올 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80개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부분이 무료 행사이다. 상당수의 이벤트는 정리가 끝난 상태이지만 이번 주말 마지막 남은 아트위크를 즐길 수 있다.

“아는만큼 보인다” 고 이번 시즌 아트위크의 특별한 세 가지 새로운 콘셉트를 알고 아트위크를 즐기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다. 1) 음식예술(Art of Food)은 예술에 영감을 받아 특별한 음료, 전채요리, 디저트 등을 창조하는 이벤트다.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레스토랑들은 아트위크 기간동안 특별 메뉴를 제공한다. 2) 길 위의 아트위크(ArtWeek on the Road)는 디지털 빌보드를 이용해 길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미술관, 박물관 등 지역 예술 기관들을 소개한다. 3) 라이트업더나이트(Light Up the Night)는 보스턴의 랜드마크 건물들에 밤 동안 불빛을 쏘아 이번 축제를 기념한다. 참여하는 건물로는 프루덴셜 타워(Prudential Tower), 사우스 스테이션(South Station), 보스턴 W 호텔(W Boston), 제이킵 브리지(Zakim Bridge) 등이 있다.

아트위크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불러오고 있다. 2013년 가을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동부지역의 475개의 기관 및 파트너와 함께 일하며 400개 이상의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아트위크는 올 가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다시 찾아올 예정이며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몇 가지 이벤트를 소개한다. 모든 이벤트의 리스트는 아트위크의 웹사이트 artweek-bos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칼라 보스턴(Color Boston)

뉴버리 스트리트에 페인트바가 열린다. 캔바스에 보스턴의 풍경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어떻게 색칠하든 마음껏 칠하면 된다.

장소: 뉴버리 스트리트 (Newbury Street)
날짜: 아트위크 기간인 4월29일 오후4시 부터 5월8일 오후 7시까지
비용: 무료

유리공예 강좌(Make Your Own Glass Art)
디아블로 유리 학교(Diablo Glass School)는 직접 유리공예를 할 수 있는 강좌를 연다. 최소 참가가능 연령은 6살이며 경험이 아주



없어도 좋다. 최소 참가 시간은 1시간이며 프로젝트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참가하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장소: 디아블로 유리 학교(123 Terrace St. Boston)
날짜: 5월 7일과 8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용: \$25

케임브리지 커뮤니티 코믹 아트페어 (Cambridge Community Comic Arts Fair)

케임브리지와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만화가들의 작품 페어가 열린다. 케임브리지 커뮤니티 코믹 아트페어(CCCAF)는 보스턴 코믹 라운드테이블과 케임브리지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다.

장소: 케임브리지 도서관 (Cambridge Public Library, Main Branch)
날짜: 5월 7일 10시부터 오후 4:30
비용: 무료

보스턴 20세기 문학 투어(Boston's 20th Century Literature Tour)

19세기의 나다니엘 호손, 랄프 왈도 에머슨

, 루이자 메이 알코트 등과 같이 20세기에도 보스턴의 문학 흐름이 나타났다. 비컨힐을 중심으로 생겨난 이 흐름을 투어를 통해 되짚어보고, 미국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다.

장소: MBTA 파크 스트리트 역
날짜: 5월 8일 오후 2시부터 3:30
비용: \$15

콘서트: 스위트 해븐 (Concert: Sweet Haven)

마더 브룩 아트&커뮤니티 센터(Mother Brook Arts & Community Center)의 오픈 스튜디오와 함께 무료 콘서트가 진행된다. 스위트 해븐은 데드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스펠, 포크 음악 밴드이다. 관객들은 콘서트뿐만 아니라 근처의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둘러볼 수도 있다.

장소: 마더 브룩 아트&커뮤니티 센터, 데드햄(123 Higt St. Dedham)
날짜: 5월 7일, 8일, 오후 1시 - 1시 45분까지
비용: 무료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 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 등 수상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하버 아일랜드 무료 페리 데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페리가 운항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공원(The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Park)은 2016년 페리시즌 시작과 함께 오는 5월 7일을 무료 페리 데이(FREE FERRY DAY)로 지정했다. 이는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100주년 기념의 일환이다.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공원 지대의 34개의 섬 중,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은 총 8개다. 그중 이번 무료 페리 데이에 방문 가능한 섬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조지 아일랜드(Georges Islands)와 스펙타클 아일랜드(Spectacle Islands)다.

105에이커(약 13만평)에 달하는 스펙타클 아일랜드에는 하버의 섬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 5마일의 하이킹 코스가 있으며 보스톤 스카이라인을 즐기면서 수영할 수 있는 해변이 펼쳐져 있다. 조지 아일랜드(Georges Island)는 남북 전쟁 당시 남부 동맹 군인의 교도소였던 포트 워렌(Fort Warren)이 있는 곳이다.

무료 티켓은 선착순으로 롱위프 노스(Long Wharf-North)에 있는 페리 센터(Ferry Center)에서 지급된다. 이 날 티켓 창구는 오전 8:30에 열리며, 가장 빠른 출발 시간의 티켓부터 그 날 가능한 모든 표를 나눠줄 예정이다. 날씨가 좋은 날, 무료 페리 티켓은 보통 오전 11시 정도면 모두 마감된다. 1인당 픽업 가능한 표는 최대 4장이다.

현재는 보스톤 출발만 가능하며 힝햄(Hingham)과 헐(Hull)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시즌 중에 개방될 예정이다. 페리 일정표 등 더 자세한 사항은 bostonharborisland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 5월 12일, 스펙타클 아일랜드가 사냥터에서 쓰레기장, 그리고 다시 도심의 오아시스로 변화한 과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고고학자이자 자연보호론자 엘렌 버크랜드(Ellen Berkland)가 토론회를 리드한다.

- 6월 23일부터 스펙타클 아일랜드에서 수영이 가능하다.

- 6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스펙타클 아일랜드에서 버클리 음대의 음악밴드가 라이브 재즈 연주를 한다. 락, 펑크, 레게 밴드의 연주는 7월과 8월의 매주 토요일, 조지 아일랜드에서 열린다.

- 6월과 8월의 특정 주말에는 조지 아일랜드에서 남북전쟁 시대의 농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9월 14일 리틀 브루스터 섬(Little Brewster)이 300주년을 맞이하여 보스톤 라이트 축제를 연다.

보스톤 하버 아일랜드 국립공원은 34개의 섬과 메인랜드 공원인 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8개의 섬은 시즌에 따라 페리보트를 이용한 방문이 가능하다. 크기와 거리가 천차만별인 19개의 섬은 개인 보트나 특수 대절 보트를 이용해서 방문해야 한다. 현재 3개의 섬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sun@bostonkorea.com

시민이 참가한 무료 패션쇼, 오픈 런웨이 열려

40여 명의 로컬 디자이너 참여, 200여 명 관객 앞에 선보여
보스톤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일반인 모델 기회도 얻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과 모델이 되고 싶은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는 패션쇼가 보스톤에서 열렸다.

지난달 29일 보스톤의 다운타운 크로싱에 위치한 메이시스(Macy's) 백화점 앞에서 무료 입장 패션쇼인 “오픈 런웨이 (Open Runway)”가 개최되었다. 아트위크 보스톤(Artweek Boston)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패션쇼는 보스톤 지역의 패션 디자이너 40여 명이 참가하여 자신들이 만든 옷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정오부터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2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였다.

40여 명의 디자이너들은 최대 다섯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스포츠웨어부터 파티 드레스, 우주를 연상케하는 이색적인 의상까지 다양한 종류의 의상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보스톤 패션 위크 창립자 제이 캘더린과 4명의 현역 디자이너 제이 칼데린, 제프리 디커슨, 차

이나 포프, 타티아나 테헤도르, 카를로스 빌라밀이 참여하여 패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객들을 위한 현장 해설을 맡았다.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은 100여 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은 무대에 오르는 긴장과 함께 추위를 타는 모습이 보였지만 무대에 오르자 프로 못지 않은 워킹 실력을 발휘했다. 이날 참여한 모델들은 사전에 보스톤 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신장 6피트 이상의 남성이나 5피트 10인치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했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패션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있는 나자 무하마드 씨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패션의 흐름과 패션 산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영감과 자극이 되었다”고 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200여명의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100여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랐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8.5 mile / Lexington 10 mile / Newton 20 mile

E-mail: sunautobody@ya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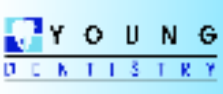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트럼프, 6월 7일 대의원 과반 확보해 공식 후보될 듯"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경쟁자들의 잇단 경선 포기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오는 7월 클리브랜드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을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는 선언(Bound · 일반) 대의원 1013명과 지역구 투표 결과에 무관하게 전당대회서 선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비선언(unbound) 대의원 41명을 확보했다.

공화당 경선 전체에 걸쳐있는 대의원 수는 2472명이다. 이중 선언대의원은 2366명이며, 비선언 대의원은 106명이다.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과반인 1237명(대의원 50%+1명)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가 공식 후보가 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오는 6월 7일에 대의원 과반을 넘기는 것이다. 이날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할당 대의

원 수가 많은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트럼프는 이날 걸려 있는 대의원 228명 중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7일 이전에도 과반 확보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대의원만으로는 되지 않고 비선언 대의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5월 10일)와 오레곤(5월 17일), 워싱턴(5월 24일)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또 승자독식제가 채택돼 있는 네브라스카에서 대의원 전원(36명)을 모두 챙기고, 남아 있는 비선언 대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을 지지한 비선언 대의원 거의 전부를 가져와야 한다.

아울러 전당대회 전에 트럼프는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한 크루즈와 존 케 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확보한 일반 대의원(각각 546명, 153명)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공화당은 특정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이들이 확보한 대의원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각 주(州)의 공화당에 일임해놓았다.

많은 주에서, 사퇴 후보가 확보했던 선언 대의원들은 비선언 대의원이 된다. 이중 일부 주에서는 사퇴 후보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주들에서는 후보가 경선 레이스를 떠난다고 해도 이 후보에 묶여 있는 대의원의 성격은 변동이 없다. 소수이지만, 몇몇 주에서는 해당주의 공화당 지도부가 대의원을 남은 후보들에게 재할당하기도 한다.

allday33@news1.kr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클린턴, 트럼프에 13%포인트 크게 앞서"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각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클린턴이 트럼프를 두자릿수의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NN은 여론조사업체 OPC에 의뢰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클린턴이 54%의 지지를 얻어 41%를 기록한 트럼프를 13%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클린턴이 트럼프를 13%p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격차다.

CNN은 이번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인디애나 경선(3일)에 앞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 경선 결과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은 테러리즘(50% 대 45%), 이민(51% 대 44%)의료보험(55% 대 39%), 소득격차(54% 대 37%), 외교 정책(61% 대 36%), 교육(61% 대 34%) 등 다수의 이

슈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를 누가 더 잘 다룰 것 같냐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50%를 기록, 45%를 기록한 클린턴을 다소 앞섰다.

jhkuk@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경선후보



미국 노스다코타주 다킨슨의 휴면 상태에 있는 석유시추 설비 보관소

미 석유업계 연쇄부도...2002년 IT 파산사태 능가할 듯

(휴스턴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파산 규모가 역사상 최대치를 향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총 59개 가스·석유회사가 파산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로이터 자료, 국제 로펌 헤인즈 앤분, 기업 파산 통계업체인 뱅크럽시데이터닷컴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2003년 정보통신(IT) 부문의 거품이 꺼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IT 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건수인 68건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기업 파산 행렬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석유·가스 업체들은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길 바라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배럴당 27달러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4일 현재 약 43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2007~2009년 주택·금융 부문의 피해 규모와 그 경제적 여파에 비하면 이번 석유시추 업체들이나 2002년 IT 업체들의 파산 규모는 작은 편이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 투자자들이 지난 2년간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입은 손실의 규모

는 막대하다. 손실 만회 예상 기간은 미지수이고, 나중에 누가 살아남을지도 불확실하다. 은행들이 얼마 전까지는 셰일오일 업체들에게 채무상환을 연기해줬으나, 최근엔 그렇지 않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석유·가스 부문 지수에 따르면 2014년 6월 이후 유가가 약 60% 이상 하락하면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가치는 약 1조200억달러(약 1179조 원)가 증발했다. 지난 2002년 다우지수 내 미국 통신부문 지수의 최대 손실 규모인 8825억달러를 훌쩍 웃돈다.

채권시장에서는 특히 정크본드의 손실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투스론로이터 자료에 따르면 석유·가스업체들이 한창 호경기이던 2010~2014년 발행한 회사채의 규모는 약 3507억달러로 IT 업체들이 지난 1998~2002년에 발행한 회사채 규모 약 1771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

총발행 채권에서 정크본드(고위험·고수익 채권)가 차지하는 비중도 IT 업체들은 10%를 밑돌았으나, 석유·가스 업체들은 50%를 웃돌고 있다.

acenes@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보스톤 근교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 들께 기고 드립니다

벌써 2달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희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는 박기식 성도님 부부의 88세 생신과 결혼 60주년을 축하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며 즐겁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후 며칠뒤에 행사에 대한 기사가 북한의 정치성향을 추구하며 선전하는 통신사와 유튜브에 까지 확산 보도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알게된 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심한 충격과 많은 상처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고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교회를 섬겨오신 두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는 일 이외에는 아무 주저함도 필요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충격과 상처는 더욱 컸습니다.

이 글을 기고하는 이유는 교회의 잘못을 해명하는 데 있지않습니다. 이 아픔속에서, 교회 밖의 한인 여론중에, 우리 교회가 친북 내지는 종북 교회라는 오해의 말들을 듣게된 은 교회로선 심히 더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와 이념은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교민을 위한 사랑은 교회의 몫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아픔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여 서로를 살리며 함께 걸어가 는 밝은 한인사회가 될수있기를 다짐해 보면서 이만 줄입니다.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용환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SUMMER CAMP

KAYP
여름캠프
선학순 24명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KAYP)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안내 합니다.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KAYP)는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캠프를 소개합니다.



1. 전통적인 여름 캠프 : 일박이대 오름 (7/5-7/6)
a.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캠프 입니다. 주제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호수로이며, 도시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여러가지 야외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b. 큰 배를 빌려 고등어 낚시도 하고, Mr. Major 로 하이킹도 가며, 강과 호수에서 카약킹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4학년을 끝마친 남녀 학생입니다.

2. 야구 여름 캠프 : 일박이대 오름 (7/10-7/11)
a.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야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 연습이외에는 카약, 하이킹, 양궁등을 즐기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b. 보스톤 지역외 야구 동호회분들의 협조로 진행됩니다.

3. 웨일즈 국제 학교 여름 캠프 (8/10-8/25)
a. 해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웨일즈 국제 학교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 참여 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 째가 됩니다.

4. 한국 스카우트 여름 캠프 (7/19 - 8/10)
a. 고국외 스카우트 남녀 대원 33명이 3주간 "Adventure to New England" 라는 주제로, KAYP Summer Program 에 참여하며, 우리 지역의 미국 브이스카우트대원들과도 교류 할 것입니다.

5. 태권도 주말 캠프 (8/12-8/14)
a. 구관장님이 이끄시는 태권도 도장에서 해마다 물레 벨트 주말 훈련을 실시 합니다.



신청: 진태원, 603-205-6679, taewonjin@phoenixbc.com, www.kayp.org
KAYP Main Office: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KAYP Auburn Camp: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30년래 최고의 봄 맞은 금... "5가지 변수에 달렸다"

올들어 20% 넘게 ↑ ...미 긴축 이후 오히려 '밸리'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금값이 올 들어 20% 넘게 오르면서 30년만에 최고의 연초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의 헤지펀드들까지 금시장에 몰렸다.

하지만, 세계 금소비를 주도하는 중국과 인도의 현물 수요 반등은 없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금이 온스당 13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재료들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소개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 트레이더들은 지난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연준이 마침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금값은 중국발 위기 덕분에 오히려 상승했다.

이제 중국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연준은 점진적 인상을 재확인해 왔지만, 금값은 좀 더 올랐다. 미국의 정책금리와 금값이 동반 상승하는 구도가 연출된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금값이 오르는 일반적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막대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

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준이 명목금리를 올리더라도 금값 전망의 핵심 포인트는 '실질금리'라고 자산관리기업 슈로더의 제임스 루크 펀드매니저는 강조했다.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그는 "연준이 올해 2~3차례 금리를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을 따지고 보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금값이 더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달러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해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8개월만의 최고치에서 크게 미끄러졌다. 금은 달러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는 금값에 호재로 작용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성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도 금값에 보탬이 됐다. 지난 1월 일본이 유로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금을 위한 새로운 케이스'의 저자인 짐 리처드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통제 혹은 지원하거나 통화공급을 조절할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줄고 있다"며 "금은 일종의 화폐 대체수단으로 인식되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화폐와 경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다"고 덧붙였다.

◇ 투자수요

금 상장지수펀드(ETF)는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소 주춤했지만 2009년 이후 최고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투자용 수요가 지속될지가 금값의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따르면 금ETF 보유분은 지난 2012년 12월의 최정점보다 1/3 낮아 추가 유입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에 근접할 수록 금ETF에서 자금이 더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맥쿼리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으로 금값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 매파적(긴축적)으로 기울어지면서 투자수요가 빠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중국과 인도

이상하게도 이번 금값 밸리에서 중국의 자금유입은 목격되지 않았다. 중국의 트레이더들은 철강, 철광석 등 다른 원자재 선물에 수십억 위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금거래소에서는 의아할 만큼 대규모 자금유입 증가세가 보이지 않아, 중국 현지의 금시세는 국제시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 귀금속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금 장신구 매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세계 금 현물 매입은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가격이 너무 높아 아시아의 금 바이어들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금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아시아 바이어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루크 슈로더 펀드매니저는 "현지 금융시장의 긴장이 심화하면 중국 투자자들이 금값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 와일드 카드, 브렉시트

영국이 다음달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다면 금값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HSBC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과 더불어 금은 "상당한 크기의 안전자산 베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파운드와 유로에서 빠져 나오는 자본의 일부를 스위스프랑과 금이 흡수할 수 있다고 HSBC는 예상했다.

kirimi99@news1.kr



서울 종로구 모동 한국금거래소 본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mi Jo (조 은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6 - MAY 12,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ean curd sushi. Handy food, fast. No fork needed.

Lunch box redo! Hold the bread, your kids will love it. H마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봄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간편하고 쉽게 만들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소고기 유부초밥으로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Bagged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8 lbs./bag \$5.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	Nagaimo 일본 마 \$3.9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79 lb.
Ginger 생강 \$1.29 lb.	Gobo 우엉 FRI/SAT/SUN ONLY 6/7/8 ONLY \$1.99 lb.	Bitter Melon 비터 멜론 \$1.9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MANNA I Love Tofu 아이러브 두부 All Varieties/16oz. \$0.88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3.49 lb.	Pork Rind-on Belly Chunk 수육용 생삼겹살 \$5.99 lb.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흥두깨 \$6.99 lb.	Beef Eye of Round Cubes for Curry 카레용 소고기 \$7.99 lb.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	Marinat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목살 \$5.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ollack Roe 동태알 \$6.99 lb.	Dried Dashi Anchovy 알들 다시멸치 \$24.99 3.3 lbs./box
TONGTONGBAY Small Octopus 통통배 절단 낙지 1.5 lbs./Sliced - pkg. \$7.99 FROZEN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0-40's \$5.99 lb.
TONGTONGBAY Mackerel Pike 통통배 맛있는 공치 11oz./pkg. \$2.99 FRI/SAT/SUN ONLY 6/7/8 ONLY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8.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DAIFUKU Fukukome Medium Grain Rice 다이푸쿠 푸쿠코메 쌀 15 lbs. \$9.99 Smart Card Only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 \$14.99 Smart Card Only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Roasted Laver 광천 녹차권 선글세트 Reg./Parae - 0.7oz x 10ea./box \$9.99 Smart Card Only	CHUNGJUNGONE 100%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장 100% 현미 태왕초 절고추장 6.3 lbs. \$12.99 Smart Card Only

抹茶フェア JAPANESE MATCHA FESTIVAL

To celebrate spring, Hmart hosts Matcha Festival. Enjoy the authentic matcha from popular Japanese matcha brands. Free gifts will be given out while supplies last.

이번 Hmart Matcha Festival에서는 일본 유명 Matcha Brand의 전통제품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MAY 7 - MAY 8, 2016 AT H MART BURLINGTON & CAMBRIDGE STORES

We invite Japanese experts to show the authentic way of making Matcha, 일본인 전문가가 직접 마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FREE GIFT GIVEAWAY (First come first serve, while supplies last)
 구매에 따라 각종 증정품을 드립니다.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KIKKO MAN Soy Sauce 기꼬만 간장 1gal. \$12.99	ESENCIA Grapess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5.99	CHORIPDONG Seasoned & Fried Soybean Curd 초립동이 레몬주부 초밥양 1.06 lbs. \$3.99	DANYA Soba Tsuyu 단야 소스 16.7fl.oz. \$3.99	CJ Chicago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CJ 비비고 도넛떡갈비 16oz. \$8.99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 8.8oz. 2\$5 ea./for	ESBENSHADE FARM Grade A Jumbo Eggs 에스벤셰이드팜 참보 달걀 White/ Brown doz. \$0.99	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광동 비타 500 KWANGDONG Vita 500 Vitamin Drink 3.3fl.oz. x 10btl/box \$4.99	POPCORNERS Popped Corn Chips 팝콘너스 콘칩 All Varieties/ 5oz. \$0.99
Global Favorite! KETOWN Sesame & Coconut/ Sweet Melon Cream Cracker 케타운 메로니/ 고소에 ITO EN 티 드링크 All Varieties/67.63fl.oz. \$0.99 5.64oz.	HELLO HOME Convection Oven 헬로홈 컨베이션 오븐 KJR-616A/ea. \$47.99	HELLO HOME Stainless Steel Laundry Hanger 헬로홈 스테인리스 빨래 건조대 ea. \$16.99	GLASS LOCK Glass Food Container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 2700ml/ea. \$11.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더민주 새 원내대표 우상호 선출... "더민주 하나될 것"

(서울=뉴스1) 조소영, 조규희, 박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4일 우상호 의원(3선·서울 서대문갑)이 선출됐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이어 더민주의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3당 원내사령탑의 진용이 갖춰진 셈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으며, 새누리당은 전날(3일) 정진석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세 사람은 다음주께 만남을 갖고 원구성 협상 및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 결선투표 끝에 우 의원을 20대 국회 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

지 않아 1위(우원식 의원), 2위(우상호 의원) 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20표(무효 1표) 중 63표를 얻은 우상호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재적 123명 중 121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1차 투표 결과 우 의원은 36표를 얻어 2위였고 1위는 40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차지했다. 민병두 의원이 16표, 이상민 의원 12표, 노웅래 의원 9표, 강창일 의원 8표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더블 우'가 올라간 결선투표에서는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63표를 획득해, 56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을 7표 차(1표는 무효표)로 따돌리고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초부터 두 사람의 '2강(強) 구도'는 예상됐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

(親문재인)계와 가까운데다, 우상호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우원식 의원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을지로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1차 표심'이 뒤바뀐 것은 우상호 의원이 더민주 전체 당선자 123명 중 57명을 차지하는 친문계 성향 초선의원들의 마음을 좀 더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은 출마선언 때부터 이날 마지막 정견발표 때까지 '조선'을 외쳤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제 지지층 절반이 조선이다. 저는 조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원들의 기류가 다름이 없으면서 유연하게 당을 운영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우 의원의 친근하고 유연한 이미지 또한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부의장 출신으로 운동권 출신이지만, 을지로위원회 등 시민·사회운동에 주력한 우원식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물론 자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문재인 전 당대표와의 관계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 의원은 정진석, 박지원 원내대표가 모두 4선인 가운데 3선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정 원내대표와 함께 '50대 기수론'에 불을 당겼다는 평이다.

아울러 우 의원의 첫 과제는 당내 다양한 계파들을 한데 모으는 '단합'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전에 있던 합동토론

회 등에서 당내 단합을 가장 강조했으며, 우 의원 또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우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당선자나 낙선된 분이나 꿈은 같다"며 "더민주는 하나가 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새누리 새 원내대표 정진석... "협치·혁신으로 최고의 당 창출"

(서울=뉴스1) 박상희, 서송희, 이정우 기자 =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누리당 원내 전략을 지휘할 새 원내대표에 정진석 당선자(4선)가 3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광림 의원은 정책위의장이 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총 119표 중 69표를 얻어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정 신임 원내대표와 경쟁을 펼친 나경원 의원은 43표, 유기준 의원은 7표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정 신임 원내대표가 과반 이상을 획득하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당락이 갈랐다.

박빙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냐는 당 안팎의 예측과 달리 낙승을 거둔 것이다.

정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은 막중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흔들리고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야 협상에 나서야 하는 중책을 맡게된 탓이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협치'를 기치로 내세우며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날 상호토론에서도 이 같은 점을 적극 부각했다.

특히 정 신임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분당 위기로 치달았을 당시 정부수석으로서의 경험을 소개, 자신이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 협상력을 갖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에서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면서 대야 협상력이 단연 최고 덕목으로 떠오른 만큼 정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이 확정된 후 연설에서 "협치와 혁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며 "당선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자율성과 정책전문성을 극대화해 최고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표심을 얻은 것이 당선자의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득표에서 당내 계파간 표심이 양분되면서 새 원내대표를 뽑았지만 추후 당내 통합 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정 신임 원내대표는 "첫째는 단결, 둘째는 결속, 셋째는 화합으로 지금 당이 어려운 데 우리가 분파로 나뉘어선 안된다"며 통합을 강조했고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신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미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과 함께 3자 회동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동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sanghwi@news1.kr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박지원 합의추대...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군 '지각변동'

(서울=뉴스1) 박웅진 기자 = 박지원 의원(4선)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되면서 여야 중 처음으로 원내대표를 결정짓자 각당이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의장직을 희망하는 다른 당 의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박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은 지난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의 한화리조트에서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이 틀날인 27일에는 당선자총회가 열려 박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됐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만 이번이 3번째다. 그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당(18대국회·2010~2011년)과 민주통합당(19대국회·2012년)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여당을 상대로 탁월한 협상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박지원 대항마'를 찾고 있다. 박 의원의 20여년 정치관록을 상대할 수 있는 노련한 인물을 앞세워 제3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민주에서는 민병두(재선)·조정식(4선)·우상호(3선)·설훈(4선) 의원 등이 거론됐다. 박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박 의원과 같은 4선의 김부겸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도 '거물급' 원내대표를 찾고 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우리도 경험과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4선)보단, 박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2010년 MB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

며 박 의원과 소통했던 정진석 의원(4선)에게 원내대표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박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인사가 국민의당 워크숍이 열리는 양평까지 찾아오려는 것을 박 의원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각각 의장직을 희망하는 정세균 더민주 의원(6선)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인사라는 점에서, 문희상 더민주 의원(6선)에 대해선 지난해 2·8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한 서운함을 내비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또 새누리당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청원 의원(8선)은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직을 더민주가 맡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 의원은 전날(26일)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무관(無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야당이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더민주에서 선수가 높은 의원 2명이 의장직 때문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찾아오기는 했다"며 "박 의원은 의장을 희망하는 분들과 주로 전화를 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국민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여야 원내대표 진검승부 개막... '센 남자' 4명 인연과 궁합은

이상호-정진석-박지원-노회찬 여야 4당 원내사령탑 진용 확정
20대 국회서 원내대표 유례없이 막중한 역할... 협치 속 주도권 경쟁 화끈할 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할 여야 4당 원내대표, 모두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이들이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는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말 가장 먼저 '정치9단' 박지원 원내대표를 추대했다. 이달 3일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박지원 원내대표(73·4선 당선·목포)가 '말형'격이다. 원내대표만 3번째이면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두루 역임한 야권 거물이다.

나이와 선수로 가장 막내이지만 원내 1당 사령탑에 오른 이상호 원내대표(53·3선 당선·서울 서대문갑)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8그룹·운동권' 출신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새천년민주당의 '젊은 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다.

정진석 원내대표(55·4선 당선·공주부여청양)는 기자 출신으로, 국

회 정보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59·3선 당선·창원 성산)는 정의당의 전신인 진보신당과 진보정의당에서 두차례나 당대표를 지낸 진보진영의 터줏대감격으로 역시 내공이 만만치 않다.

우선 이 4명의 원내대표들의 서로 얹히고설킨 인연이 눈에 띄어 궁합이 썩 잘 맞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29년 전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나 정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을 잘 아는 내가 적임"이라고 어필했다. 이날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박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등 박 원내대표에 각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이상호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더민주를 탈당하기 전까지 의정활동을 함께 한 선후배다.

박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치러진 전당대회에 우 원내대표가 출마해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었다. 우 원내대표 역시 "박 원내대표와의 신뢰"를 강조한다.

정 원내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함께 다녔다. 나이는 노 원내대표가 4살 더 많지만 노 원내대표가 군대를 다녀온 뒤 대학에 입학해 79학번 동기인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노 원내대표의 손을 잡으며 "의정활동도 같이 오래하고 대학교도 같은과 동기

"라고 친근감을 드러냈고, 노 원내대표도 "좋은 인연이 있는 만큼 저도의 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지원-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선거에서 야권이 통합할 때마다 중추적 역할을 하며 호흡을 맞췄다.

4당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원구성에서부터 시작해 각종 법안은 물론 차기 대선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은 각종 인연과 '협치' 화두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협치를 원칙으로 원숙한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19대 때보다는 분명히 순항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교섭단체 3당 중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더민주, 새누리당과 번갈아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이 커 이른바 '박심'(박지원의 의중)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네 사람 모두 위낙 선이 굵고 각당에서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는 탓에 여야 '강대강' 국면이 생각보다 일찍 조성돼 20대 국회가 험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

더민주가 1당의 지위를 엮고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구조개혁·경제활성화 입법에 비판 불륜을 키우고 있어,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riwhat@news1.kr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신임 원내대표. 왼쪽부터 정진석(새누리당), 이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붙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실어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더민주 조선의원들, 29일 팽목항 방문... "20대국회 세월호해결"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 제안... "현재 24명, 참여인원 더 늘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오는 29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을 제안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등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29일은 20대 국회 개원하기 바로 전날로 '20대

때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더민주 조선의원 총 5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방에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오후 10시 현재까지 금태섭, 기동민, 강병원, 김병관, 김현권, 손혜원, 이훈, 표창원 당선자 등 24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손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를 알리며 "시간되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자"고 일반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당선자는 "참여인원은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도 제안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자



안광한 MBC 신임 사장

세월호특조위, 안광한 MBC 사장 등 3명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보도의 경위를 묻기 위해 출석 통보한 MBC 임원들의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일 제3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책임자였던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박상후 전국부장(현 문화레저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특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보도의 경위를 묻기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답변서 요청에는 국회 국정조사 때 낸 자료를 표지만 바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또는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밝혔다.

안 사장은 참사(2014년 4월16일)가 난 달 25일 사내 게시판에 세월호참사 보도를 두고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 국가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ickim@news1.kr

세월호특조위 "정부, 추가예산 요청에 '무성의 답변'"

(서울=뉴스1) 김태현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19일 기획재정부에 올 연말까지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권 소위원회장은 "장관급 기관장 명의

로 보낸 공문에 정부는 과장급 전결로 답신을 보내왔다"며 "그마저도 아무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통제 한 채 오는 6월 말 특조위 활동이 끝나는 것처럼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올 연말까지 소요될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기재부에 다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news1.kr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압수수색... '정운호 로비' 본격수사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사무소, 관할 세무서도 포함
브로커 통해 검경수사 무마·사업 확장 관련 로비 수사

(서울=뉴스1) 구교운, 성도현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과 최모 변호사(46)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수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네이처리퍼블릭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세무자료를 분석해 세금탈루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검경 수사무마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브로커 여러 명을 통해 각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12~2014년 329억원대 마카오 도박혐의 수사와 2015년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2년 마카오 도박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2014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무마 대가를 의혹으로 일부 경찰관이 정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 대리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검경 수사단계에서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대표는 2015년 10월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 조건으로 20억원의 수임료를 줬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를 찾아가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석에 실패하자 정 대표 측은 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으며 구치소 내 폭행사건으로 번졌다.

이후 최 변호사가 '정 대표측에서 법조브로커 이모씨(56) 등을 동원해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폭로전이 시작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로 지목된 브로커 이씨 검거를 위한 전담팀도 대폭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3개 전담팀을 꾸린 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는 서울 지하철역 내 화장품 매장 확장 관련 서울메트로 직원 등 대관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지명수배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H 변호사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할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닌 또다른 브로커가 정 대표의 사업 관련 로비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방산비리에 연루된 한모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주된 혐의는 방산비리" 라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각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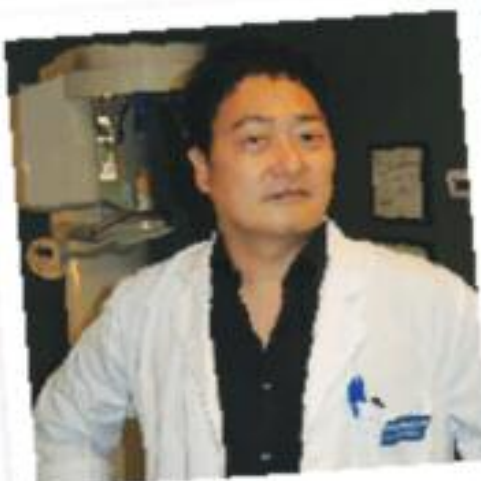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통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용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파 화장실 내 위치)

탈라, 교란지 쥬,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루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컬로언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지,
피로방, 탄력, 밝
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요인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 50% 할인
간접광고로 인해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해외주재원 꽃보직 옛말...본국 소환 걱정에 단신부임까지

(서울=뉴스1) 박종민 기자 = # 독 일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 는 A 과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귀 임 통보를 받았다. A과장은 4년 임기 로 독일에 나갔으나 최근 프로젝트 수 주를 놓쳤다는 이유였다. 사업 특성 상 본인만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A과장은 2년간의 짧은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했다.

중국 주재원으로 확정된 B 과장 은 회사로부터 단신 부임을 권유 받았 다. 이 회사는 중국, 일본에 한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단신부임을 권장한다. 주재원의 가장 큰 혜택은 자녀 교육에 있다고 믿어온 B과장은 고민에 빠졌 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가겠다고 말 하고 싶지만 소위 '찍힐까봐' 망설여 진다. B과장은 결국 단신부임을 택했 다.

과거 해외주재원은 급여나 자녀교

육 조건에서 전망의 대상이었다. 복귀 후 임원 승진도 보장됐다. 하지만 혜 택 축소와 강한 업무 강도로 주재원 인 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사업 틀어지면 문책 1순위 ...임기 다 못마치고 귀임도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재원으 로 나가게 되면 법인에 사람도 많지 않 고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다보니 업 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며 "해외에 서 회사를 대표하다보니 사업이 틀어 지면 주재원부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주재원 근무 시절 본사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던 직원은 복귀 후 비 주력 사업군으로 발령을 받는다. 부장 급 주재원의 경우 아예 복귀 부서를 배 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업무 성과가 미미하면 임기 중간에 귀임시킨다.

국내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 최근에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중간에

소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보니 아예 예전에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임 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다 시 내보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담당 임원 입장에서 도 자신이 내보낸 직원이 소환되면 책 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나 "라고 덧붙였다.

◇ 가장 큰 장점은 자녀교육...실상 은 "글쎄"

흔히 주재원의 가장 큰 혜택은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 국제학교 입학이나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아직 어린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일은 없 다.

이러다보니 주재원 선호도도 연령 대별로 나뉜다. 자녀가 아직 너무 어 려 외국어를 습득할 정도가 아닌 은 직원들은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중 · 고교생 등 앞으로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자 녀를 둔 부장급 직원들은 주재원 선호 도가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일본 등 가 까운 나라의 경우 단신부임을 권하고 있어 실제 자녀교육 혜택은 많이 줄었 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주택거주지원도 실비 처리로... "사실상 혜택 축소"

최근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외주재 원의 주택거주 비용을 실비 처리 체제 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의 주택거주 비 용을 지원받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주

택을 선택하고 일부 여유 금액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이 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금액에 대 해서만 지원한다. 체계적인 비용 관리 가 목적이지만 직원 입장에서선 당연히 혜택 축소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재원은 회사 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나 혜택 면에서 여전히 메리트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이라며 "하지만 해외에 대한 환상도 사라진지 오래고 워낙 주재원 일상도 고되다보니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jmpark@news1.kr



검, '청문건 유출' 조응천 · 박관천 2심 판결 불복 상고

특수2부, 4일 법리오해로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 찰이 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 었던 '정윤희씨(61)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 사 김석우)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 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조 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54)의 무죄, 박관천 경정(50)의 집 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 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통 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 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윤희 문건' 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 다.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나 사생 활이 담겨 있고 내용 유출시 대통 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인 박지만 EG 회장(58)에게 이 문 건을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일부 뇌물수 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 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 났다고 보고 모두 면소 판결을 내 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 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 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 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 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 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 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 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 관 등이 워싱턴 보고를 끝낸 전자문 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 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 다.

다만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희)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 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 · 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dhspeople@news1.kr

'정운호 게이트' 열리나...검찰, 의혹 전부 들여다본다

(서울=뉴스1) 여태경, 구교은 기자 = 검찰이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 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운호 게이트'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관련한 전방위 로 비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 원석)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 처리퍼블릭 본사와 정 대표를 폭행 혐 의로 고소한 최모 변호사(46)의 법률 사무소,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범 조브로커 이모씨(56)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 등을 이번 사건 핵심인물 을 출구금지하고 수감 중인 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된 정 대표의 변호를 맡은 뒤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다 수임료 갈등을 빚으며 대규모 의혹을 촉발했 다.

이씨는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검거전담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씨는 정 대표가 고비 때마다 마당 발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한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서울 지하철역 내 매 장 확장과 관련한 로비를 위해 정 대표 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 법 위반)로 지난 1월 지명수배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대 상 습도박 혐의로 기소되기 전인 2014년 마카오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 사를 받았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대표는 마카오 카지노 3곳

에서 329억원대 바카라 도박판을 벌였 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대표가 마카오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일부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대리점을 요구했다는 의 혹도 나온다.

또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에는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입김 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 분이 있던 이씨가 H 변호사를 정 대표 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정 대표가 100억대 필 리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 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사건을 배당 받은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관 할 세무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정 대표 의 회사돈 횡령과 정관계 로비로 수사 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또 이날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가 정 대표 로비 의혹의 또다 른 브로커로 거론되고 있는 한모씨를 군납비리 혐의로 체포하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 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한 의혹을 받

고 있다.

이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 사의 로비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도박사건 항 소심 변론을 맡으며 보석 대가로 수임 료를 20억원이나 챙겼다. 최 변호사는 이를 위해 담당 부장검사를 수차례 찾 아가 만나 구형량을 낮춰줄 것을 부탁 하기도 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적 대표 송모씨(40) 사건에서도 27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송씨의 소개로 정 대표 사건 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앞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받았지만 2심에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 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 해자들이 최 변호사를 사기 등의 혐의 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검찰이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근 송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 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가 정 대표와 최 변호사 등 이번 사건 에 이름이 오른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 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Pre-Construction Pricing! ACT NOW!



BROOKFIELD VILLAGE



New Single Family Homes From \$400K's

www.pulte.com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a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at SouthField in Weymouth, MA!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all or visit for information!

877-772-6131



**Open Tues.-Sun. 9-5
Mon. by Appt.**

**An Exceptional Value
Right Now On New
Single Family Homes!**

Life Tested™ Features

- ✓ Six Spacious 2-4 Bedroom Homes
- ✓ Single Family and Town Home Designs
- ✓ Granite Kitchens
- ✓ Walk to Commuter Rail
- ✓ Master Suites
- ✓ Detailed Interior Trim
- ✓ Nine Foot 1st Floor Ceilings
- ✓ Low Maintenance Living
- ✓ Life Tested™ Designs

WOODSTONE CROSSING

Why rent?... When You Can Own.
Woodstone Crossing



Life Tested™ Features

- ✓ 7 Spacious Floor Plans
- ✓ Luxury 1-2 Bedroom Homes
- ✓ Granite Kitchens
- ✓ Low Monthly HOA Fees
- ✓ Master Suites
- ✓ Detailed Moldings/9' Ceilings
- ✓ Elevator Building
- ✓ Low Maintenance Living
- ✓ Walk to Commuter Rail
- ✓ Minutes from Boston
- ✓ Life Tested™ Designs

Sales Center Open • Tues - Sun 10am-5pm Mon By Appt.

**New Garden Style Condominiums!
Sales Center Now Open!
New Homes From \$300K's**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in Weymouth, MA at SouthField!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www.pulte.com

866-813-7267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ommonly Association fees required. Details available upon request. Offers and price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2016 Pulte Homes of New England LLC.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NEWSTAR
BOSTON**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Beds, 2.5Bath, 1960sf.
좋은 학군, 많이 update된 집
넓은대지, open된 실내구조
이현주 401-935-3397



\$6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650,000
Lexington, MA
3 Beds, 1Bath, 1188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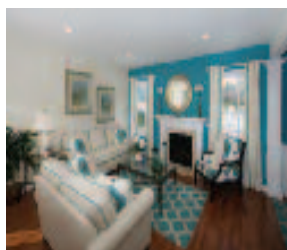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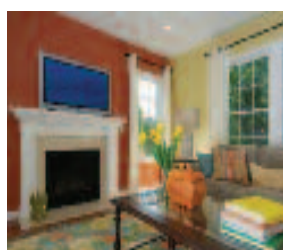
New Construction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싱글 하우스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75,000
N.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Gina Choi 978-866-3248



\$2,700
Boston(Back Bay), MA
1Beds, 1 Baths 709 sf.
트인구조, 높은 천장, 새 부엌
Jay Lee 781-654-5281



\$1,500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0년 이래 / 100만 명 이상의 고객 /
전국에 걸쳐 활동하며 / 100% 고객 만족 / 한국계 부동산 전문가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출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출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915,000 Providence, RI 브라운대학 근처, with Liquor 이현주 (Julie Lee) 401-935-3397	\$309,000 All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Coin Laundry	프렌차이즈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한국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셋팅 전문 S.J Park 617-304-7001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타 SJ Park 617-304-7001	
Investme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5,000 Boston, MA 아주 붐비는 위치 SJ 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309,000 Allston, MA High Traffic Main Road Steven Son 617-921-6979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크기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패츠 드래프트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NFL 드래프트가 끝나고 여러 매체에서 각 팀의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택권을 박탈당한 패트리어츠의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드래프트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선수들을 지켜봐야 한다. 아무리 대학 시절에 뛰어났던 선수라고 할지라도 프로 무대에서의 활약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각 매체에서 내놓은 패트리어츠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NFL.com: B

NFL.com의 분석가들은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에서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6라운드에서 테드 캐라스를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향후 캐라스의 출전 시간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자코비 브리셋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백업 쿼터백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USA Today: C

USA Today는 패트리어츠가 조 류

니와 캐라스 등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펜시브 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드래프트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orting News: C

올해 패트리어츠 드래프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러닝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Sporting News 역시 러닝백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패트리어츠가 1라운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백업 용도의 선수를 너무 많이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SB Nation: C

SB Nation의 풋볼 분석가들은 패트리어츠가 2라운드에서 선택한 사이러스 존스는 패트리어츠에서 훌륭한 코너백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2라운드에서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1라운드 선택권이 없는 패트리어츠에게 2라운드 선택은 1라운드만큼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이미 패트리어츠에는 젊고 유능한 코너백들이 있기 때



패트리어츠는 알라바마 출신의 코너백 사이러스 존스를 2라운드에서 선택했다

문이다.

Sports Illustrated: C+

역시 패트리어츠에 1라운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낮은 평점을 받은 중요한 요인이다. Sports Illustrated는 올해 패트리어츠가 가장 잘 뽑은 선수로 말콤 미첼(4라운드, 와이드 리시버)과 사이러스 존스(2라운드, 코너백)를 꼽

았다. 전반적으로 아주 “벨리직다운” 드래프트 였다고.

Fox Sports: B

다른 여러 분석과 마찬가지로 존스와 미첼을 최고의 선택으로 꼽았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쿼터백 브리셋을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에게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Yahoo: C+

Yahoo에서 패트리어츠 최고의 드래프트로 꼽은 선수는 존스다. 패트리어츠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는 평가다. 그러나 빈센트 발렌타인(3라운드, 디펜시브 태클)에 대해서는 올해 패트리어츠 최악의 선택이라며 “킹 사이즈 부진야”라고 불렀다.

jsi@bostonkorea.com

박병호, 3일 만에 시즌 7호 홈런포...이대호 · 최지만은 대타 출전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린 지 3일 만에 7번째 홈런을 때렸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와 최지만(25·LA 에인절스)은 대타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박병호는 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 메이더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시즌 7호 홈런을 날려 4타수 1안타 1타점을 써냈다. 시즌 타율은 0.250이 됐다.

박병호는 3-6으로 뒤진 6회초 2사 후 볼카운트 2B2S에서 상대 선발 콜린 맥휴의 7구째 시속 91마일(약 146km)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지난 1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에서 조던 짐머맨을 상대로 시즌 6호포를 때린 뒤 3일 만에 추가한 홈런이었다.

이후 9회초 선두타자로 나가 3루 땅볼로 물러났다.

앞서 박병호는 2회초 선두타자로 맞은 첫 타석에선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4회초 1사 후에는 삼진을 당했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추격 홈런을 끝으로 추가 득점을 내지 못해 4-6으로 패했다.

미네소타는 시즌 성적 8승19패를 기록했고, 휴스턴은 9승18패를 마크했다.

미네소타 선발 알렉스 메이어는 2%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3볼넷 4탈삼진 3실점하며 시즌 첫 패를 당했다. 타선은 휴스턴보다 2안타 더 많은 7안타를 때렸지만 집중력이 아쉬웠다.

이대호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O.co 폴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8-1로 앞선 9회초 2사 후 넬슨 크루즈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볼카운트 2B2S에서 리암 헨드릭스의 7구째 시속 77마일(약 124km) 커브를 공략했지만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50로 하락했다.

이날 시애틀은 오클랜드를 8-2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시즌 성적은 15승11패. 반면 3연패한 오클랜드는 13승15패를 기록했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 이와쿠마 히사시는 7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첫 승(3패)을 수확했다. 타선은 홈런 세 방을 포함해 장단 13안타를 때리며 폭발했다.

최지만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4-5로 뒤진 9회초 2사 후 호세 알바레스의 대타로 나갔으나 제레미 제프리스의 3구째 시속 9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 메이더파크에서 열리는 201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6으로 뒤진 6회초 2사 후 시즌 7호포를 터뜨렸다

마일(약 154km) 투심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077에서 0.071로 떨어졌다.

최지만은 전날 밀워키전에서도 9회초 2사 만루에서 대타로 출전해 제프리스에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었다.

이날 에인절스는 밀워키에게 지면서 2연패에 빠졌다. 시즌 성적은 12승15패, 3연승

한 밀워키는 11승15패를 기록했다.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 닉 트로피아노는 5이닝 동안 5피안타(3홈런) 5볼넷 6탈삼진 5실점으로 흔들리며 시즌 첫 패(1승)를 당했다. 타선에서는 유넬 에스코바, 라파엘 오르테가, 알버트 푸홀스가 2안타씩 때리는 등 총 9안타를 기록했으나 뒷심에서 밀렸다.

hyillily@news1.kr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30% 절약
매지움: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루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절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집은 살려진 하나님의 집이고 사랑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2:46)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시30
영양/영양/초경/영양부대회/영양부모회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담임 목사 / 무사향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제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영순 목사
유년부: David Moon 전도사
영년/360: Erika Kim 전도사

주: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4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Div.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가톨릭 대학원신학과 교수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회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35, (978) 944-3404
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개혁: 오후 2시 |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US 월드 리그 프로
sj.usgtr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진실, 존중, 인내, 사랑, 용서,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영성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목회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요일 6:30, 목요일 9:30

비전교회
The past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555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주 법인을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가좌식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총책임자 **이선호**
781.266.7245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전해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도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요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Seoul Seolne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Fax: 617.505.6772
Email: BeefSoup.com

서울 Seoul
Seoul on Beacon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Tel: 617.877.8888
Email: SeoulFoodBar.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학교육학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류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04
보스턴예수제일교회	781-393-004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드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렉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렉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십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 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창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가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정심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매일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아프스	617-871-1482
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송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손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4/29
웨스트보로한국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터 및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66-8898

4/29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4/29
헤어 & 그레이스 살롱에서
미용사 및 네일텍 구함.
(플레밍햄 지역) T. 508-879-777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5/13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4/22
N[매 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2/26
N[구 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m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ch118@gmail.com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디마프' 노희경 표 '꼰대' 이야기는 특별하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고현정과 '시니어벤처스'라고 불리는 막강한 노배우들의 만남의 구심점은 노희경이었다. 그가 보여줄 노인들의 이야기는 뻔하지 않고 트렌디할 것을 예고했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우리 시대 꼰대들과 청춘들이 서로에게 친애하는 친구가 되는 어울림을 유쾌한 웃음과 상쾌한 감동으로 그려낸다. 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고현정을 비롯해 화려한 출연진 뿐만 아니라 노희경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노희경 작가는 "대본이 허술해서 선생님이 채워주실 거라 생각했다. 섭외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다. 다들 흔쾌히 해주셨다. 다만 기획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해의 시장에 한류로 노리고 젊은 배우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든다. 장사로서 가치가 있을까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혜자와 첫 호흡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 시대였다. 김혜자 선생님을 모시는데 누구 엄마로 모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 이 작품을 하면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진심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에 고맙다"고 말했다.

배우 윤여정 역시 합류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그는 "다른 드라마에서 각자의 엄마를 했다. 40년 전에는 같은 드라마를 같이 했다"

며 "동창으로도 함께 했다. 그렇게 헤어졌다가 각자의 엄마 역할을 하다가 한 드라마로 뭉쳤다. 서로의 흥취를 다 안다"고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만나면 울컥하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연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 늙은 우리가 우습다. 여러분도 늙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고현정은 3년 만에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그는 "저로서는 3년 만에 작품을 한다"며 "그렇게 원하던 노희경 작가님 작품에 출연하게 돼 영광이다. 너무 의미있고 뜻깊은 작품이라서 힘든 것도 모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희경이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뚜렷한 뜻을 전하고자 한다. 모두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그는 "드라마에도 굳이 첨가물을 넣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는게 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예뻐하고 귀여워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어벤져스급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출연진이 뭉쳐 '꼰대'들의 속사정을 내밀하게 그려낸다. 매년 작품을 통해 문클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그렸던 노희경 작가가 대배우들과 함께 그려낼 하모니에 기대가 모인다.

reddgreen35@news1.kr



2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5 October, 2016

BIFF 측 "前 집행위원장 검찰 수사, 정치적 의도 대단히 유감"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4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전양준 부집행위원장, 강성호 전 사무국장, 양현규 사무국장 등 4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아끼는 모든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시비 거리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 아무쪼록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일을 영화제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로 삼겠다. 어떤 시비 거리도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하겠다. 영화제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을 반드시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화제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다만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정 영화를 틀었다고 집행위원장이 해촉되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도 납득하

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경우 개인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해촉 등 정치적 압박의 연장이다. 정치적 외압을 견뎌내지 못한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건강부회, 침소봉대하는 논리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일부 언론에서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부가 올해 영화제에 관한 극적 타격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부가 올해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긴 하나 아직 타결이 된 것은 없다"면서 "영화계가 인정할 만한 분을 새로운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원론적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영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 방안에 관해선 아직 아무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아무쪼록 올해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3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영화제 전·현직 집행부 4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luem_chang@news1.kr

'부산행' 대한민국을 찾아온 전대미문의 재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올 여름 개봉 예정인 영화 '부산행'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다.

4일 공개된 '부산행' 론칭 포스터는 도심 곳곳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에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헬기와 자욱하게 피어 오른 연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의 습격과 이에 쫓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덮친 전대미문의 재난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여기에 "살고 싶다면 부산행 KTX에 탑승하라!"라는 강렬한 카피는 재난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가기 위한 주인공들의 처절한 사투를 예고한다. 특히, 이번 론칭 포스터는 단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도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4월 25일 ~ 2016년 5월 1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6.9%
2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4.7%
3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8.8%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8.6%
5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6.9%
6	KBS1	KBS9시뉴스	16.9%
7	MBC	무한도전	16.4%
8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5.8%
9	SBS	정글의법칙삼TONGA	13.4%
10	KBS1	가요무대	13.1%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5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7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8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0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CHEER UP	TWICE
02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3 봄이 좋다??	10cm
04 Toy	블락비
05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Feat. 이성경)	에디킴
06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07 너 is 원들	마마무
08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9 사랑에 빠졌조 (당신만이)	장범준
10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ZICO)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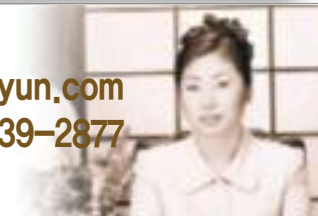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9		4		2	3		6
		6				7	9	2
			9					1
7	1	8			4			
			6			2	3	8
8					3			
3	4	9				6		
6		1	5		9		7	

5월 8일 - 5월 1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확실하게 마무리를

●운수: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전부터 키워오던 바램이 있었다면 불을 지피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금전: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망설이던 마음을 잡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소띠 |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운수: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금전:금전적으로 바라는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애정:이성으로 인해 실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범띠 | 자세히 살펴보도록

●운수: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성공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금전:중요한 것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곤경에 빠져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애정: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10,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토끼띠 | 지금 걷는 첫 걸음이

●운수: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할 때에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첫 걸음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금전: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익이 생깁니다. ●애정: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물론이고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 때로는 늦춰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

용띠 |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운수:시아를 넓혀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전:아쉬운 대로 현실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위험이 있으니 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애정:잘살할 때에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4일 길일. 9, 13일 주의.

뱀띠 | 의외의 좋은 결과를

●운수:자신을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허심탄화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힌트를 발견할 것입니다. ●금전:실속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애정:멋진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시기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3일 길일. 8, 14일 주의.

말띠 | 신중하게 판단하고

●운수:정리하더니 뒤따라오는 일들이 걱정되고 계속해서 가자니 자꾸 신경 쓰이니 고민만 깊어집니다. ●금전:자충수를 두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과감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한 번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

양띠 |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운수:과로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다음 날에 해도 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애정:자신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정작 화풀이는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2일 길일. 9, 13일 주의.

원숭이띠 | 인생의 기회라고 여길

●운수:다시없는 인생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금전:돌아가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애정:가족 간이나 부부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꽃도 피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4일 길일. 8, 9일 주의.

닭띠 | 이런 저런 유혹이

●운수:자식이라도 성인이 되면 간섭의 강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금전:이런 저런 유혹이 들어오니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손해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애정: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후회할만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운수: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금전: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 질 것입니다. ●애정:진정한 인연은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기쁨으로 느끼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희망이 보이는 때로

●운수:자식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취직을 하거나 승진하게 되는 등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금전: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애정: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섹시한 해상구조원...AOA 유나 민아 설현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해상구조원으로 변신한 AOA 유나, 민아, 설현의 모습이 공개됐다. FNC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티저 사이트를 통해 4번째 미니앨범 '굿 럭'(Good Luck) 워크 버전 콘셉트

트 포토 중 유나, 민아, 설현의 모습을 선보였다. 멤버들은 해변을 배경으로 레드 스웜슈트와 핫팬츠 차림으로 섹시함을 뽐내었다. 해상구조대라는 콘셉트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굿 럭'은 워크(WEEK)와 워크엔드(WEEKEND)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건강하고 프로페셔널한 해상구조대의 모습을 담은 워크 버전과 주말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워크엔드 버전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AOA의 새 앨범은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ppbn@news1.kr



'신서유기2' 이수근, 전방위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신서유기2' 이수근의 활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tvN go '신서유기2'에서 이수근은 깨알 같은 예능감과 듬직함, 그리고 신흥 브레인으로서 매력을 과시했다.

이수근은 본인의 특징점인 상황극들과 더불어 분노의 디스랩을 선보였다. 강호동 안재현 팀과의 기상미션에서 패한 후 디스랩을 선보이며 기대 이상의 비트박스와 랩실력, 그리고 깨알 같은 라임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또 이수근은 막내인 안재현이 많이 안 먹어서 음식이 남는다며 걱정했고, 모델 시절부터 체중 조절을 위해 입이 좁아진 그에게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며 형으로서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수근은 신흥 브레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점심 식사를 위한 3초 식사미션에서 이수근은 수많은 오답이 난무하는 가운데 순발력과 번뜩이는 재치들로 답을 맞추며, 이승기의 부재를 틈타 새로운 퀴즈 강자로 등극했다.

이수근은 시즌2를 통해서 삼장법사로 활약, 멤버들 사이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고 동시에 살아난 입담으로 깨알 같은 웃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그가 또 얼마나 시원한 웃음을 전하게 될 지 기대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무한도전' 멤버들, 김은희 작가와 연기 오디션...거침없는 평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특집이 김은희 작가와 만났다.

오는 7일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황광희 신입의 첫 등장이 그려진다.

이와 함께 팀원들의 결원으로 연일 야근에 불만이 커진 '무한상사'도 속내도 밝혀진다. 그리고 유부장과 대립이 처음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퍼펙트 센스'에 출연해 활약한 양세형은 옆 팀 유능한 인재로 등장해 '무한상사'에 재미를 더한다.

또 이번 '무한상사'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드라마 '시그널', '유령', '싸인'을 집필한 스틸러물 대가 김은희 작가와 장하준 감독 부부가 손을 잡고, 극본과 연출을 직접 맡았다고 한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OMAB • GDT • LMB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상업용 주택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우리집 꿀단지
2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SBS	내 사위의 여자
4	KBS	아이가 다섯
5	MBC	아름다운 당신
6	MBC	가화만사성
7	MBC	그래그런거야
8	MBC	내일도 승리
9	SBS	천상의 약속
10	MBC	옥중화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신규 방송

1	MBC	옥중화
2	KBS	마스터 국수의 신
3	KBS	이웃사이다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최신 영화

1	설형	눈길을 건다	김태훈, 박소담
2	두 개의 연애	김재욱, 채정안	

'또 오해영' 서현진, 믿고 보는 로코퀸의 귀환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서현진이 '또 오해영'을 통해 로코 연기를 펼친다.

서현진은 2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또 오해영'(극본 박해영 연출 송현욱)에서 평범녀 오해영 역을 맡아 유쾌하면서도 짝함이 느껴지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서현진은 머리도 보통, 센스도 보통, 외모도 보통인 외식사업부 만년 대리 오해영으로 분한다. 학창시절 동명이인 예쁜 오해영 때문에 '그냥' 오해영으로 불리며 투명인간 같은 시절을 보낸 인물이다.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사진 속 서현진은 홀로 우두커니 서서 무표정을 하고 있다. 다른 사진에서는 강한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오해영의 순탄치 않은 인생을 예고하고 있다.

서현진은 지난해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2'를 통해 연애에서 톤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또 오해영'에서도 서현진의 진가가 발휘될 전망이다.

서현진은 "'그냥' 오해영은 '흠해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평범한 여자다. 그래서 많은 20-30대 여성들의 공감을 살 수 있길 바란다"며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울고 웃고 재밌어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reddgreen35@news1.kr



'별난가족', 사이다+막걸리 섞인 드라마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정성호 KBS 드라마 국장이 '별난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성호 국장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1 새 일일 드라마 '별난가족'(극본 손지혜 정지은/ 연출 이덕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별난가족'이 국민 드라마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난가족'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배경과 다양한 캐릭터로 그동안 다루지 않았

던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청춘들과 중년 로맨스가 모두 있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국장은 또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량한 사이다 맛과 잘 익한 막걸리 향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화제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별난가족'은 꿈과 사랑을 향한 치열한 청춘들과 그 곁에 있는 별난 가족들의 이야기로 5월 2일 저녁 8시25분 첫 방송된다.

nahee126@news1.kr



TBO PLAY

보스톤군과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39.99

무제한 시청 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nand, y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플랜트 : 맥심전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준박**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6. 드림오피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8. 드림오피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아파트 : Asking **\$225,000 SALE PENDING**
6.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98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son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미발 식물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오피스빌딩 : 4층2실 1000평1사무실 2사무실
세탁실 300평 2사무실 3사무실

콘도
47 Homer Ave, Unit 5-6
Cambridge, 2Bed 1Bath 1kitchen
좋은 위치, 하버드 스쿨에서 버스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5회

'복종'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생각해보면 참으로 까마득한 날이 되었다. 시골 작은 집들이 산과 강을 끼고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루며 살던 어릴 적 고향은 지금도 여전히 내겐 그리움이고 설렘이고 기다림이다. 그래서 또 내게 어울리는 '삶의 무늬'를 놓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지작거리는가 보다. 작은 시골 마을 중학교에 젊으신 남자 국어 선생님이 부임하시게 되었다. 선생님의 멋진 넥타이와 양복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머플러는 40년이 다 지나도 작은 소녀의 마음에 여전히 고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 멋진 국어 선생님은 바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몇쟁이 시인이셨다.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시간에 만해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을 선생님의 깊은 목소리로 낭독해 주셨다. 그 이후 님의 침묵 시편의 참뜻은 고사하고라도 머릿속에 담으며 외우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한용운 님의 시편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생각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특별활동반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국어 선생님이 좋아서 문예반을 들어간 것 같다. 지금도 선생님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여쭙곤 한다. 스승과 제자는 아무리 오래도록 헤어졌다가 만나도 여전히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고 재미있다.

선생님께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대학

원(평생교육원)에서 국문학 강의를 하고 계신다. 이제는 칠십 고희(古稀)를 넘기신 연세지만 여전히 맑고 밝으신 긍정적인 성품에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선생님을 찾아뵈는 지가 몇 년이 훌쩍 흘렀다. 다음 한국 방문 때에는 꼭 선생님을 뵙고 와야겠다. 한용운 님의 시편을 만날 때면 선생님 생각이 떠오르고 어릴 적 추억이 몽실몽실 피어오른다. 선생님의 제자가 글쟁이가 되었다는 소식에 선생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듯 어릴 적 국어 선생님께서 읊어주셨던 그 깊고도 심오한 〈님의 침묵〉의 시 한 편은 그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청소년기를 맞으며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머릿속에 외우는 시편은 몇 되지 않지만, 그중에서 좋아하는 시편이 몇 있다. 김춘수 님의 〈꽃〉, 소월의 〈진달래〉, 만해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과 〈복종〉 등이다. 세상 나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해의 〈복종〉 시편은 내게 감동이라기보다는 영혼 깊은 곳에 찾아와 나를 흔들기도 하고 저 깊은 바닷속 수면으로 데려다 놓기도 한다.

만해 한용운 님의 〈복종〉은 독립운동가로

서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간절하고도 애절한 절대적인 헌신의 조국애가 담긴 시편이다. 어디 그뿐일까.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성경공부(교재:에베소서 / 박승호 목사 지음)를 듣게 되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시편 〈복종〉은 내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엡 5장)는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복종'의 의미가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복종'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서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내 남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종'을 해 본 일이 있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의 복종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한 적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묵상하며 남편과 마주하니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다. 그 귀한 마음의 뿌리에 존중과 신뢰의 '복종'의 싹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신발에 발을 맞추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월은 어린이 달이다. 한국에선 어린이날이 있다. 동요 오페생각이다. 비단구두가 어린이 날 선물치고는 곱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빠꾹빠꾹 빠꾹새 숲에서 울 제
우리 오페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최순애 작사 박태준 곡)

한족漢族의 풍습이던가. 명나라의 풍습이라 던가. 전족纏足 이란게 있다. 발을 억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다. 아주 고약한 풍습이다. 어릴적에 중국집 부인네들이 뒤통거리며 걷는 모습을 이따금 봤다. 검은 중국옷

은 때국물이 번지르르 했는데, 육중한 몸매는 참 딱해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이야기 이다. 학교 규정엔 검은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현대, 이 친구 발이 너무 컸다. 당연한 것 처럼 발에 맞는 검은색 운동화를 구할 수 없었다. 미국이라면 야, 발이 큰이들이 많을 테니 걱정이 덜했을 수도 있다. 궁지에 몰린 친구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튀어 나왔다. 체육기구를 파는 가게로 갔다. 가게에는 문수가 큰 신발들이 이따금 있었다. 운동선수들은 발이 크니 말이다. 수입품은 아닐텐데,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나온걸까. 하지만 그 친구는 절망했다. 운동구점에도 발에 맞는 검은색 운동화는 없었다. 모두 흰색 농구화밖에는 없었으니 난감함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흰색 농구화를 사서 신고 등교했다. 교문에서 훈육주임 선생님께 걸렸다. 검은색교복에 흰색 운동화는 날 잡아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 당연히 엎드려 뺨쳐야만 했다. 그날 오후다. 잔머리를 굴렸다. 고육지책骨肉之策이란 거다. 흰색 운동화에 검은색 매직펜 칠을 하는 작업이었다. 흰색을 검게 하려했던 거다. 엎드려 뺨쳐 기합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다. 작업은 교실 뒤편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건 내가 겪었다. 그 옛날 한국 신병훈련소이다. 군복이며 군화를 지급받았다. 군화가 너무 작아서 발에 맞지 않았다. 신발이 크다면 그저 끌고 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작은 군화는 접어서도 신을 수 없다. 경향 중에 내가 물었다. 혹시 발에 맞는 걸로 바꿔 주십시오 했

던 거다. 함상국은 대답이 돌아왔다. '발을 군화에 맞춰라.' 전족纏足を 만들라는 소리다. 나중에 알았는데, 맞지 않는 군화는 동료들과 바꿔 신는 거다. 다행히 신발에 맞추기 위해 내 발을 줄이지는 않았다. 세상은 궁하면 통하는가?

세상일에 내가 맞춰야 한다. 흰색 운동화지만 검은색 구두약이라도 발라야 한다. 세상은 검은색 운동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페가 사 온 비단구두는 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걸 말했다. 대통령이 맞춰야 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몇몇 신발을 신는가? 그건 국가비밀인가?

나는 굵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 1:7)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경쟁과 속도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갇혀있지 말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날개를 펴보십시오.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기의 창을 열고 나설 때, 자기가 찾는 이상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0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올해 봉축법요식은 토요일에 열립니다.)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특별행사: 오후 2시 이후, 장수촬영(영정사진촬영).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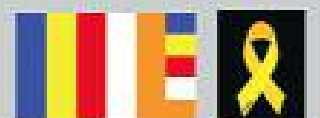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MUNSUSA TEMPLE
사임스리유기이원다란도당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4)

산 카를로스 주거지역으로 이주 코치스 추장이 죽은 후 장남인 타자가 추장직을 물려받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부족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부족은 여러 분파로 분열하고 일부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백인에 대한 약탈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였다. 인디언의 습격에 시달린 백인들은 치리카우아족의 주거지역을 옮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치리카우아족은 1876년에 산 카를로스(San Carlos)로 이주하게 되었다. 치리카우아 산의 거주지역에 비하면 산 카를로스는 모든 면에서 조건이 훨씬 나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절반가량의 인디언들은 새 주거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멕시코로 도망가 버렸다. 멕시코로 간 무리 중에는 전설적인 게릴라 전사인 제로니모도 끼여 있었다.

빅토리오 전투

멕시코로 넘어간 제로니모 무리들은 멕시코 인들을 여러 차례 습격하여 가축들을 약탈한 후 뉴멕시코로 끌고 와 다른 농장에 팔아 통과 술 그리고 기타의 생활용품을 사온 했다. 그 무렵 빅토리오(Victorio) 추장은 바브레 아파치족(Mimbres Apache)을 이끌고 뉴멕시코의 오호 칼리엔테 캠프(Camp Ojo Caliente)에 머물고 있었는데 제로니모 무리들이 친척 관계에 있는 바브레족을 찾아갔다. 1877년 3월 연방정부는 바브레족도 산 카를로스로 이주시

키고 제로니모를 비롯한 치리카우아족 탈주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브레족과 함께 산 카를로스로 잡혀간 제로니모는 거기서 넉 달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다.

원래 화이트 산 근처에 위치한 산 카를로스 인디언 보호구역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메마른 지역으로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제반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여름이면 기온이 40도를 넘어가고 여러 가지 풍토병도 창궐했다.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으니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 아파치족이 스스로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라 미군들로부터의 식량배급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는 처지가 돼 버렸다. 산에 가면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으나 백인에 대한 습격을 우려하여 미군 당국은 사냥을 금지시켜버렸다.

산 카를로스에 수용된 인디언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맞춰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치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참다못한 빅토리오가 1877년 9월 2일 부족민과 함께 산 카를로스를 탈출하여 전에 살던 오호 칼리엔테로 향했다. 가는 동안에 미군에 붙들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시 산 카를로스로 돌아가고 80명의 전사들만이 바브레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탈출에 성공한 전사들은 1880년에 멕시코에 본거지를 설치하고 메스칼레로족(Mescalero)과 치리카우아족으로부터 전사를 불러 모아 세를 크게 늘렸

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 정착민을 살해하고 말과 생활용품들을 약탈했다. 습격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 거칠어졌고 백인에 대한 증오심은 더 높아갔다. 미군과 멕시코군은 빅토리오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1880년 10월 14일 멕시코군이 빅토리오를 포함한 전사들의 대부분을 죽였지만 30명 정도의 전사들은 그래도 살아남았다. 70세의 나나(Nana) 추장은 나머지 살아남은 전사들을 이끌고 미군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였다.

제로니모의 1차 산 카를로스 주거지역 탈출

1881년 9월 산 카를로스에 있던 치리카우아족 사이에는 적대적인 아파치 추장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제로니모를 포함한 약 70명이 주거지역을 빠져나와 국경을 넘어 멕시코의 시에라 마드레산(Sierra Madre Mountains)으로 들어갔다. 1882년 4월 제로니모 무리들이 산 카를로스 주거지역에 남아있던 부족민들을 멕시코로 데려가기 위하여 화이트 산으로 왔다. 많은 부족민을 인솔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1868년도에 있었던 로만 노즈가 사망한 비처 섬 전투에서 살아남은 퍼시스 대령이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 뛰어난 전술로 퍼시스 부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으나 도중에 만난 멕시코 보병들에

게 여자와 어린아이들 대부분이 살해당했다. 무리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이들은 나나의 게릴라부대와 합류했다.

아파치 인디언과 미군사이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면서 더 많은 미군들이 화이트 산 주위에 배치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주거지역 인디언들이 탈출하여 멕시코로 들어가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멕시코로 이동하는 도중에 아파치들이 농장을 습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여 백인들의 불안감도 높아갔다. 미군 당국은 크룩 장군을 애리조나 총사령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크룩은 아파치 인디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산 카를로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실행했다. 군용 말이 먹는 건초를 백인 대신 아파치인디언으로부터 구입하고, 아파치 족이 농사지어 먹고 남은 농작물은 군에서 모두 현금으로 사 들이고 부족 경찰대를 만들어 부족의 자치제를 시행하였다.

거주지역 안에서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멕시코에 은거중인 제로니모 무리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었다. 전에 같았으면 크룩은 당장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제로니모를 잡으러 출동하였겠지만, 그동안 크룩은 다른 사 람이 돼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9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실이 색공으로 진흥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동생인 미생도 화랑도가 되었다. 하지만 미실의 아버지 미진부공은 충성을 다하여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를 섬겼지만 어떠한 연유인지 총애가 줄어들었다. 아마도 지소태후의 인통姻統이 미실과 달랐기 때문 이라고 보여진다. 지소태후는 진골정통이고, 미실은 대원신통이다. 그래서 미진부공은 자신의 충성을 지소태후에게 재확인 시키기 위해 화랑도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언제 어느 전쟁에 나갔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진흥왕은 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하였고, 그 후 진지왕 부터는 상대적 으로 약해진 신라의 국력을 틈타 백제로 부터의 많은 공격이 진평왕을 거쳐 선덕여왕대 까지 이어졌다.

진지왕은 정말로 폐위되었는가? 삼국사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삼국사기 진지왕본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25대 왕으로 576년에 즉위한 진지왕의 이름은 사륜 또는 금륜이다. 즉위와 동시에 이찬 거칠부(황종)를 상대등으로 삼아

국정을 맡겼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고, 재위 3년째인 578년7월에는 남조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4년의 짧은 치세 동안 백제와는 대결상태를 유지했다. 577년10월에는 백제가 침입함에 세종을 출전시켜 격퇴하고 내리서성內利西城을 쌓았다. 그리고 578년에는 백제에게 알야산성을 빼앗겼고 579년에는 백제가 웅현성, 송송성을 쌓아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 등의 길을 끊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죽고, 시호를 진지眞智라 하고 영경사 북쪽에 장사지냈다. 이것이 삼국사기 진지왕 본기의 핵심 내용이다. 다른 인물들과 연관된 기록은 더 있지만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없다.

다음은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정사가 어지럽고 문란하여 국인들이 폐위하였다. 폐위 되기 직전에 진지왕은 사랑부에 사는 도화녀를 왕궁으로 불러 동침을 요구했으나 도화녀가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완강히 거절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없으면 되겠냐고 물으니, 도화녀는 남편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왕권으로 남편도 없앨 수도 있었을테고 또한 강제로 도화녀를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지왕은 도

화녀를 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었기에 진지왕은 살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2년 후 도화녀의 남편이 죽은 뒤 진지왕의 훈령이 도화녀를 찾아와 동침을 하였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승의 도화녀'와 '저승의 진지왕'과의 사랑 이야기는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룰것이다.

화랑세기에서는 미실의 색공으로 즉위한 후에 왕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음에 미실과 사도태후가 결탁하여 노리부를 앞세워 폐위시켰다.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보면 진흥왕이 죽고 진지왕이 등극하면서 거칠부가 국정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일부는 왕권이 동륜태자의 아들인 13살의 김백정에게로 갈 것을 거칠부가 죽은 동륜태자의 동생 김사륜을 옹립하면서 국정을 잡았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화랑세기를 보면 사도와 미실이 성년인 사륜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동시에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래서 당시 나이도 있고 명망이 높은 거칠부으로 하여금 상대등을 맡게하였다(거칠부는 4년 후 진지왕의 폐위와 함께 노환으로 죽었다). 그리고 미실은 진지왕의 후궁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하였으

며, 또한 자신과 측근들은 거칠부의 가족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거칠부의 딸 윤궁은 미실의 심복이 되었고, 윤궁의 아우 윤옥을 미생(미실의 남동생)의 첩으로 삼았다. 그리고 윤궁의 남동생인 윤항은 사도태후(진흥왕의 비)의 딸 월륜과 혼인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측근인 노리부와 노동공도 거칠부와 함께 국사를 장악하게 하였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진지왕은 색을 지나치게 밝히고, 그 결과 미실에 대한 총애가 없어지자 사도와 미실은 진지왕을 폐하기로 하고 실행하였다. 당시 왕성에서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힘쓰던 문노파는 세종이 담당하였고, 사도의 오페인 노리부가 왕을 폐위하였다. 그리고 동륜의 아들 백정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진평왕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택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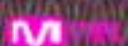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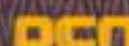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tvN  Olive  STORY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내 떡,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 (5)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VII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힐러리의 삼대; 힐러리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힐러리 자신이 선택한 남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개과의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개과의 남자'를 최광현은 '나는 남자를 버리고 싶다'의 자신의 책을 통해 잘 설명해준다. 그는 남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하나는 '늑대 같은 남자' 이고 둘째는 '개 같은 남자'이다. 늑대는 개의 능력을 훨씬 넘는 지능을 가졌고 여우보다는 피가 많다. 매우 신중한 습성으로 세세한 것까지 예측하며 사냥한다. 늑대와 가장 비슷한 동물로 종종 '개'를 꼽는다. 하지만 늑대와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늑대는 처음의 성관계로 짝이 된 암컷과 평생 관계를 이어간다. 반면 수컷은 암컷이 배란기가 되어 냄새를 풍기면 2마일부터 냄새를 맡으며, 배란을 원하는 암컷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웃거린다. 어느 암컷이든 발정기가 되면 암내를 풍기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늑대는 처음 짝을 맺은 암컷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이 있다. 암컷을 종속변식을 위한 '성관계대상(Sex Object)'만이 아닌 함께 무리를 꾸려 나가는 중요한 역할로 대우하는 것이다.

'늑대 같은 남자'는 늑대의 습성처럼 독립심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무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강함 남자가 된다. '개 같은 남자'는 주인에게 삶을 의지하듯, 자신의 배우자 역시 새로운 의존의 대상으로 여긴다.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정서적, 성적,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신의 의존을 숨기려 항상 당당한 척, 자신 있는 척을 한다. 막상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짙다. 늑대 같은 남자는 늑대 같은 대상을 통해, 스스로 가져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을 배우고, 개 같은 남자는 개 같은 대상을 통해, 자신에게 이

익을 주는 대상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힐러리의 삼대의 걸친 남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방수였던 힐러리의 할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무능했다. 힐러리를 수년간 연구해온 알마 본드(Alma Bond)박사가 쓴 'Hillary Clinton'에 따르면, 힐러리 아버지인 휴 로담(Hugh Ellsworth Rodham)은 철저한 가부장적 남자로 세 명의 자식들을 매질로 엄격하고 과격하게 훈육하기도 했으며, 특히 힐러리 어머니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며 무시하곤 했다고 한다.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은 어떠한가? 복잡한 여성편력으로 힐러리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였다. 힐러리의 삼대의 걸친 남자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볼 때 강하다. 실제로 힐러리 아버지는 6피트가 넘는 거구였고, 클린턴 또한 6피트 2인치로 건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내면이 강한 여자들을 선택하며 그들의 약한 내면을 보충했다. 이 양면성은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클린턴은 92년 대통령 취임 벽두부터 제니퍼 플라워스라는 여성과의 불륜이 폭로되어 그를 괴롭히더니 클린턴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두번째 섹스 폭로 내용은 클린턴이 주지사 시절에 혼외정사를 손쉽게 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년 후인 94년, 공무원이었던 폴라 존스는 자신을 성희롱한 혐의로 클린턴을 기소했다. 존스의 기소로 클린턴의 성희롱 건은 본격 수사대상이 되었으며, 범정부독을 저지른 유일한 대통령으로 체면에 먹칠을 했다. 그녀의 주장은 주지사였던 클린턴의 호출을 받아 호텔방으로 찾아갔다가, 바지를 내리고 오를 섹스를 강요하는 클린턴을 뿌리쳐 진급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존스는 이때 클린턴의 성기를 봤다며 그 특징을 묘사한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클린턴은 정기건강검진 때

자신의 성기를 기술한 의사진단서를 끌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성기가 법정에서 거론되었던 이 수치,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4년 법정 공방 끝에 클린턴은 폴라 존스에게 85만달러(약 10억원)짜리 수표를 우송함으로써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을 일단락지었다.

폴라 존스의 법정 공방 중, 여변호사 돌리 카일 브라운이 학창시절부터 30년간 클린턴과 밀애했다고 폭로했고, 그 유명한 정치 인턴 르윈스키도 함께 증언했다. 클린턴의 화이트 워터 사건을 조사중인 케네스 스타 검사는 클린턴이 르윈스키에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르윈스키라는 인물이 스캔들의 정점에 떠오르며 클린턴의 목을 바짝 죄었다. 결국, 자신의 위증에 대한 면책 대가로 르윈스키는 8월 6일 연방대법원에서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증언하기에 이른다. 이어 17일 클린턴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비디오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으며 곧이어 대국민 사과까지 곁들였다. 클린턴은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대통령' 반열에 들게 되었다.

거듭된 불륜, 복잡하고 역겨운 남편 클린턴의 성추문을 겪으며 마음의 폭력을 당한 힐러리의 수치심과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던 힐러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수치심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비중이 크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힐러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남자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그 시대의 여성화의 모습이 있다.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주지사 사로 있던 시절 클린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던 힐러리가 클린턴의 성적 변태성의 수모를 참아내고, 더 나아가 클린턴을 성추문의 위기에서 구해 내면서까지 클린턴을 지키려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알마 본드의 '힐러리'에 대한 책에 따르면, 힐러리는 무서운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시크한 면에 매력을 이상화했다. 따라서 나쁜 남자를 아버지로 둔 그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녀의 '새도매조키스틱'한 성적 쾌감을 형성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힐러리 아버지의 새디스틱한 가부장적 억압의 쾌감과 힐러리의 매조키스틱한 순종의 쾌감의 모습은 클린턴 성추행의 새디스틱한 쾌감과 힐러리의 모멸감과 수치심의 매조키스틱 쾌감과 닮은꼴이 있다.

힐러리는 어머니를 끊임없이 무시하지만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사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남성상'을 보며 자랐다. '베르텔 바르데츠키(Barbel Wardetzki)'는 '여자의 심리학(2013)'을 통해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과 의존이라는 두 개의 대조적인 행동양식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즉 자기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일절 거부하면서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나친 완벽주의, 외모지상주의, 사치와 허영 등의 배후에 바로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자존감 부족과 대인관계 장애라는 두 가지 특성이 깔려 있는데, 자존감 결핍은 어린 시절의 분리경험과 직결된다고 한다.

다음 칼럼을 통해, 힐러리의 여성적 나르시시즘 자립과 의존의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13년 이상 100만명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가장 편안한 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EMF 인증 매트 제조업체입니다.

Made in Korea

34년 기술력

아랫목 溫水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상급사이즈
퀵사이즈

보일러와 매트 분리식으로
냉고 건전하게 이용

구매하셔요! www.heraldemart.com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확실한 무소을 보증

- 자기도 일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01 공중배려 원동력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일러와 매트 분리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전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free delivery

무료배송 (하와이, 알래스카는 \$90추가)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 참가 대상** 지역 초·중고, 대학(원)생, 사회인, 국내·외/탈북, 현지인, 참전용사후손, 군인 등 2명 이상 5명 이내의 팀
- 발표 방법** 팀별 2~5명으로 편성, 10분 이내로 자유형식 발표
※ PT·토론·뮤지컬·공트·연극·개그·연주·마술·댄스 등 모든 퍼포먼스 허용
- 대회 신청** 참가 신청 마감: 5월 20일, 자료 제출 마감: 5월 27일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
- 대회 진행** 예선대회: 6월 4일(토) Harvard 대학
※ 각 예선대회 최우수팀 본선대회 진출
본선대회: 7월 18일~22일(잠실롯데월드몰 및 캠프그리브스)
※ 방송중계 및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행사 진행

총 2억원 상당의 상금 및 다양한 특전

예선 시상	최우수상	1팀	본선참가특전	● 최우수팀은 본선출전권 부여 ● 해외 최우수팀(전원)에게는 상금으로 본선참가권을 위한 항공권(국제) 지급 ● 본선팀은 대회기간 합숙비 전액지원 ※ 본대회 지역예선대회도 지원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본선 시상	대상	1팀	1천만원	● 전국 '통일·안보'대, 인증서 수여 ● 국내·외 통일안보 행사에 초청 ● 안보 통일인보교대 워크숍 초청 ● 연세대학교 진형요원으로 참여 ※ 시상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수상	5팀	3백만원	
	장려상	13팀	1백만원	

문의연락처
문미자 mijayun@hotmail.com / 조진형 contact.bostonnuac@gmail.com

www.showonekorea.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0)

투자 기본을 무시하면

한 회사의 주식, 채권, 특정한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는 한국말로 뭇빵(?) 투자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이러한 식으로 투자하지만, 잘못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를 무시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전문가라는 칭호를 뛰어넘어 투자의 대가(masters of the universe)로 불리는 몇 사람이 약품 회사인 벨리언트(Valeant, VRX)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15년 8월 \$260이었던 주가가 현재 \$28로 90%나 폭락했습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빌 액크맨(Bill Ackman)의 퍼싱 스퀘어(Pershing Square) 펀드는 이 약품 회사의 집중 투자로 작년 40% 손실을 보았고 현재도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하는 회사 숫자가 10개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10개의 회사 중에서 단 한두 개 회사주식이 하락하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헤지펀드는 부자들만 투자하므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

반 투자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시코이아(Sequoia) 뮤추얼 펀드를 운용한 펀드매니저 로버트 골드파브(Robert Goldfarb)는 잘못된 밸리언트 집중투자로 뮤추얼 펀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뮤추얼 펀드는 총자산 중에서 밸리언트 약품 회사에만 3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시코이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돈으로 찾다니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그대로 있자니 펀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의 수익 성적은 투자 성격이 비슷한 펀드와 비교해서 밀바닥 2%에 속합니다. 2016년 첫 분기에만 뮤추얼 펀드 총자산 \$5.5 billion에서 \$500 million을 찾아갔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뮤추얼 펀드를 팔면 현금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산입니다. 시코이아 펀드에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펀드를 팔았을 때 현금으로 5%를 받고 나머지는 회사주식으로 받았습니. 회사 주식은 오라이리(O'Reilly Automotive Inc.) 자동차 부품 파는 회사입니다.

뮤추얼 펀드 회사가 현금 대신 회사주식을 주는 이유는 투자이익(capital gain)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뮤추얼 펀드가 폭락하면 많은 투자자가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현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기에 투자한 다른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주가가 상승한 회사 주식을 팔면 수익이 발생하기에 현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현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주식(redemption in kind)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팔면 뮤추얼 펀드 수익률에도 나쁘게 작용합니다. 투자자는 현금 대신 생각하지도 않았던 회사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플랜으로 401(k) 등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 회사를 비롯한 50여 개의 다른 회사는 여러 뮤추얼 펀드를 은퇴 투자종목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시코이아 뮤추얼 펀드입니다. 직장인은 노후대책으로 회사

에서 제공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결과는 투자손실입니다.

잘못 판단한 특정한 회사의 집중투자는 많은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뮤추얼 펀드매니저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도 주식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별적인 주식투자나 뮤추얼 펀드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식 선별의 도사(?)는 분명 없습니다. 있다고 가정해도 한 시점입니다. 반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과거가 증명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할 수 없다면 재정설계사도 어떤 뮤추얼 펀드가 유망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기본을 무시하면 일반 투자자는 물론 주식전문가나 도사(?)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 대박'이 아니라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며 꾸준한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10%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올해 주택 시장 전망, 해외 경제 불안하지만 전문가들 긍정적 전망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거의 반이 지났다. 지난해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해의 호황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정체기에 진입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아직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지난해 같지 않아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다. 그렇지만 올해는 중국 경제 경착륙, 유가 하락, 대선 등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인맥뉴스'가 주택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 불안속 긍정 전망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벌써 4월에 접어들었지만 주택 시장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일선 에이전트 사이에서는 작년과 다르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등 해외 경제 불안 요소와 국내 증시 부진 등이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 하락 속에서도 주택 구매자들은 목돈이 필요한 주택 구매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 올해 주택 시장 전망도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속단은 이르다.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4~5월에 가봐야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을 판가름할 수 있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보다는 다

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임대수요 ↑, 구매 수요 ↓', 알렉스 비아 코타(클리어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해 눈여겨봐야 할 주택 시장의 2가지 추세는 주택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다. 지난해 뜨거웠던 주택 임대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까지 이어져 임대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이미 상승 탄력을 잃은 주택 가격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은 오르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주택 임대 시장의 과열 현상이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세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올 임대 난을 단단히 준비해야겠다.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고 임대 주택 공실률이 기록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면 주택 매매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높은 임대료 부담에 주택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자금 마련이 힘들어져 주택 구매 포기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수년간 급등을 거듭한 주택 임대료 영향으로 이미 주택 소유율은 50년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 임대료 상승폭에 따라 영향 받게 될 주택 매매 시장 전망이 올해 큰 관건이다.

■ '주택 수요 늘어난다' - 조너선 스모크(리얼터 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 세대간 주택 거래 활발

밀레니엄 세대에 의한 주택 구매 수요가 크

게 확대될 전망이다. 25~34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올해 주택 거래 예상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만채의 주택 구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는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의한 주택 공급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년에 접어든 X세대의 경우 올해 이직이나 전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주택 처분으로 인한 매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은퇴 연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 사이에서는 다운 사이즈 수요가 상당하다.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은퇴용 주택이나 저비용, 소규모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로 인해 교외 지역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 공급 역시 증가가 기대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저가대 신규 주택 공급이 늘 것으로 예상돼 젊은층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자율 상승 주택 시장에 긍정

모기지 이자율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 금리 인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 오름폭은 기준 금리 인상폭보다도 낮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 경제 불안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올 한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 된다.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자극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 사상 최저 수준에서 머물던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 '관망'에서 '사자'로 이동하는 수요로 주택 거래 증가가 이뤄지는 것이 과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올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주택 임대료 상승세다. 주택 가격 상승폭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주택 임대료는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전국 약 85%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 시장의 임대료 시세가 이미 세입자들의 생활비 중 부담스러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진다. 만약 올해 주택 가격 둔화가 심화되는 한편 임대료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임대에서 구입으로 전환하는 수요 증가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겠다.

■ '주택 매물 부족' - 마크 잔디(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근 몇 년간 주택 신축이 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주택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역시 주택 재고 부족 현상이다. 경기 회복과 함께 신규 가구가 형성되고 2차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동시에 기존 주택 노후 현상이 심해져 신규 주택 재고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저가대 주택 시장에서의 매물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 주택 건설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www.BoKoMart.com

LaCena Blooming Kitchen

LA CENA 후라이팬 4종
궁중팬 2개+후라이 팬 1개+뚜껑

1. 24cm 후라이팬
2. 28cm 후라이팬
3. 28cm 궁중팬
4. 28cm 궁중 뚜껑

\$169
\$109

후라이팬과 궁중팬 4종 세트는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특히, 후라이팬과 궁중팬을 함께 사용하면 요리 시간이 단축되고, 요리 결과도 더욱 좋습니다.

mom's cook
엄스쿨 건강익대스터

25분 요리시간

\$179
\$129

엄스쿨 건강익대스터는 25분 요리시간으로, 건강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엄스쿨 건강익대스터를 사용하면 요리 시간이 단축되고, 요리 결과도 더욱 좋습니다.

cosolar 친환경 세라믹 코팅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인체에 무해하고, 불순물 및 PFOA를 포함하지 않은 저산 Xpride 친환경 세라믹 코팅을 내외면에 코팅한 손주물 제품들이 늘 건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19

1. 높은 내열성 및 내식성
2.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3.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4.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5.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6.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7.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8. 뛰어난 내열성 및 내식성

냉장고는 코팬
COOL & SAVORY REFRIGERATING COOKER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을 위한 조리기...
집안에 음식냄새가 집안에 베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조리기...

전골 코팬
사각 그릴코팬

해방 워킹시외
음식 냄새 안녕~
이제 실내에서 평생 구워요!

\$90
\$75

냉장고는 코팬은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을 위한 조리기입니다. 특히, 냉장고는 코팬을 사용하면 요리 시간이 단축되고, 요리 결과도 더욱 좋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몸의 기억: 러브 커널 (Love Canal) 비극과 슈퍼펀드법 (1)

"나는 우리 동네가 좋았어요. 도시 안에 있었거든요. 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 운동장은 주변 집들에게 매우 커다란 공터이기도 했습니다. 곧 새로운 파크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Lois Gibbs, Love Canal and the Birth of the Environmental Health Movement 중에서)

"교육감에게 전화를 해서 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마이클의 건강 문제, 즉 화학물질이나 온갖 종류의 약품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학교가 독성물질이 대량으로 폐기된 바로 그 자리에 지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차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은 엄마가 특정한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전학을 허락할 수는 없다면서 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Lois Gibbs, Love Canal and the Birth of the Environmental Health Movement 중에서)

뉴욕 주 나이아가라 폴즈 근방에 러브 커널이라는 곳이 있다. 인용문의 저자인 로이스 깁스는 1972년에 러브 커널 지역으로 이주했던 평범한 20대 가정주부였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학교에 만족스러워하던 그녀는,

불과 5년 후 아들 마이클을 제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녀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녀와 이웃들이 조직한 <러브 커널 흡오우너즈 어소시에이션>은 독성 화학물질 폐기로 인한 러브 커널의 오염문제가 주민들의 건강에 끼친 영향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후에 깁스는 <건강, 환경, 그리고 정의의 센터>라는 이름의 풀뿌리 환경운동단체를 조직한 활동가가 되었다.

깁스와 같은 가정주부를 환경운동 '투사'로 바꾸었던 것은 그녀와 이웃들이 맞닥뜨린 환경 재앙 탓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산, 선천적 기형, 여러 종류의 희귀암, 호흡기 장애, 신장질환, 백혈병, 비정상적으로 높은 적혈구 수치 등의 원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자녀들의 미래 건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비극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분노는 그들을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깁스가 거주했던 '러브 커널'과 그 비극의 역사는 18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가 William T. Love가 뉴욕 주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일종의 꿈의 도시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구상을 가지고 사업권을 따냈다. 러브가 구상했던 사업의 핵심은 나이아가라 강과 온타리오 호를 연결 짓는 운하였다. 실제로 집

도 몇 채 짓기 시작했고, 운하도 파기 시작했으나... 1893년 전 미국을 강타한 경제 위기와 몇몇 다른 요인들로 인해 러브의 운하 건설은 끝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러브의 "파다 만"운하는 방치되었고 1920년 무렵에는 나이아가라 폴즈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되었다. 1940년대에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폐기물 역시 이곳에 매립되었다. 한편 세계 제 1차대전 무렵부터 나이아가라 지역은 대규모 전기화학 및 금속 가공 산업의 세계적인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 무렵 나이아가라 폴즈에 자리잡은 공장 중에 후커 케미컬 회사가 있다.

1942년부터 러브 커널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했던 후커 케미컬은 1947년 시로부터 아예 이 부지를 매입하여 1953년까지 총 2만 2천 배럴의 산업 폐기물을 매립했다. 후커 케미컬이 러브 커널부지에 매립한 폐기물은 벤젠, 톨루엔, 벤젠산, 트라이클로에틸렌, 벤젠 알데히드,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클로로폼 등 유해성 화학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화학 물질은 희귀성 백혈병, 만성 림프성 백혈병, 백혈구 수치 이상, 피부 문제,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53년 산업 폐기물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졌을 무렵, 후커 케미컬은 매립지를 진흙과 표토로 덮어버렸다.

사실 여기까지만해도 토양 오염의 문제는 충

분히 심각했다. 그런데 문제를 거의 재앙적인 수준으로 만든 원인은 1953년 나이아가라 교육위원회가 러브 커널 매립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 위에 학교를 세우려고 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데에도 있다. 지리적인 몇 가지 이점덕에 전기-화학 산업 공장이 대거 들어섰던 나이아가라 폴즈 지역의 인구는 2차 대전 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고 대개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었다. 즉 새로운 학교에 대한 수요나 혹은 이들이 감당할만한 가격대의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거나 나이아가라 교육위원회는 러브 커널 매입이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 지 인지하고 있었을까? 적어도 후커 케미컬은 알고 있었다. 부지는 단돈 1달러에 교육위원회에 판매되었다. "양수자인 나이아가라 교육위원회는 산업 폐기물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상, 재산상의 모든 상해를 포함한 모든 위험 및 법적 책임을 감수하며..."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다는 대목, 사실상 기증에 해당하는 1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이를 암시적으로 증명한다. 얼마 뒤 땅 속에서 각종 유해한 독성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지는 학교 부지로 조성되었고, 학교 주변은 주택지로 개발되었다.

(다음주에 계속)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 -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L-visa) 심사 완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인터뷰 심사가 쉽지 않다”, “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한다” 라는 말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했고 신문 상에도 L비자가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더구나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L비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E비자마저 쉽지 않아지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L-1비자 심사 개선안’을 발표,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재원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거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 기준만 넘을 경우 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

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L비자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비자는 H-1B와 같은 다른 취업 신분과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 지사나 자매 기업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임금을 한국 본사에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회사들이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이익은 미비한 시장 진출 초기 회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심사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L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서류 준비는 여전히 철저해야 하며 L비자의 기본 조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수혜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국 회사의 모기업, 지점, 자매회사 등에서 임원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급 직원들을 위한 L-1A비자의 경우, 어떤 정도의 일을 해야 ‘임원/간부급(Managerial/Executive capacity)’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민법에서 ‘임원/간부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회

사 규칙을 결정하는 자리인지, 회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일반 사원이 아닌 과장과 같은 중간 관리직 사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직책인지,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L비자 신청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급 직원들의 경우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급은 아니지만 핵심 인재로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L-1B라는 비자가 허용됩니다.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혹은 특정 고객층이나 마켓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의 경우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임원급과 동일하게 미국 내 미 설립 혹은 설립 초기인 회사의 직원의 경우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수혜자인 직원이 배우자나 21세 미만

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가족으로 L-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지사 설립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핵심 인력 파견이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급 혹은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적절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자 혹은 소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L-비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엔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과목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